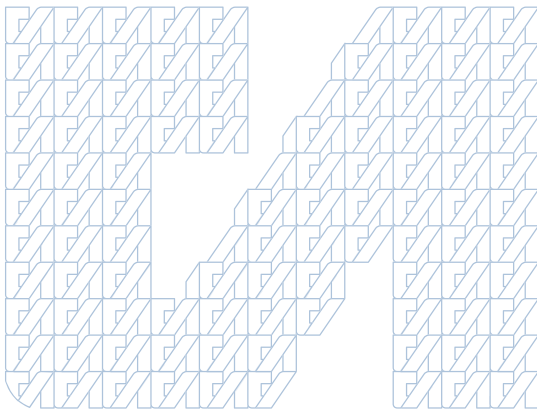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전략과 추진방안

지 남 석 외



정책연구 2023-05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전략과 추진방안

지 남 석 외

연구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남석 /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희 /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 학부 부교수 • 양승희 / 혁신공간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이자은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가원 / 세종연구실 전문연구원

정책연구 2023-05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전략과 추진방안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자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http://www.dsi.re.kr>

인 쇄 (주)경성문화사 TEL 044-868-3537 (FAX: 044-868-356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 제언

■ 개요 (배경과 목적)

-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은 도시를 계획·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됨
- 최근 각 지자체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범용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취지의 개념임
 - 범용디자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종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작업을 진행 중임 (2022.12.20. 조례 시행)
-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세종시 범용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향후 실천방안 마련” 기초연구 수행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범용디자인, 그리고 친화도시

□ 범용디자인이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순화어(다듬은 말)로 범용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음
-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란?

- 세종시는 정책적으로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향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세종시의 친화도시 지정현황]

친화도시명	최초지정년도	내 용
여성친화도시	2016.12.	○ 2021.12.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아동친화도시	2017.9.	○ 2022.12.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고령친화도시	2020.3.	○ 3년간, 8대 영역 52개 실행과제 수행 

- ‘친화도시’ 개념은 선도적·모범적 도시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의미임
-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는 범용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화된 환경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

■ 사례 검토

□ 부문별 전후 비교

- 가로 부문_ 보도·차로: 횡단보도 구간에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색채와 블록으로 구분하고, 보도의 단차를 최소화 함
- 공원·광장 부문_ 주차장: 차량과 보행동선에 혼선이 없도록 보행동선 표기에 인지하기 쉬운 색채를 적용함
- 공공건축물 부문_ 다목적 화장실: 명도 대비가 높은 마감재 사용, 안전을 위해 손잡이의 길이·소재 변경, 유아용 의자 설치 등을 설치함
- 교통시설 부문_ 승강장: 열차와 승강장 간 단차를 없앤 구조로 변경하여 쉽게 탑승하도록 유도함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부문별 전후 비교]

□ 기본계획 구성

- 서울과 제주에서 수립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구성에 차이는 있으나, 향후 세종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가능할 것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구성 비교]

항목 구성		서울	제주	주요 내용
연구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의 범위	●	●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현황 진단	일반 현황	●	●	고령인구,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 증가 보행 친화적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 중요성
	관련 법·제도 현황	●	●	국내 법규 현황, 관련 정책 추진현황
	체계 및 방침	●		
	사업추진 현황	●	●	사업·교육·홍보 분야
	도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인식조사, 이동약자 설문조사, 현장조사
특징 및계획과제	●	●	시대적 여건 변화와 과제 도시문제 해법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본 방향	비전 및 목표	●	●	비전, 목표
	추진전략	●	●	
전략별 실행방안		●	●	
선도과제		●	●	
시범대상지 계획		●	●	시범대상지 세부실행방안 도출 프로세스 제시
보행법		●		보행성 평가, 결과 분석 및 제안
결론		●	●	결론, 정책점 시사점

□ 가이드라인 구성

- 사례로 살펴본 주요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을 참조하여 향후 세종시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에 방향성을 설정하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수 있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비교]

부문	영역	세부 항목	서울	제주	경기	경남	천안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	●	●		●
		차량진입구역	●	●	●	●	●
		대지 안의 공지	●			●	
		자전거도로	●	●	●	●	●
		시설물 구역	●	●		●	
		보차도 분리			●	●	●
	차도	국지도로	●	●		●	
		횡단보도	●	●	●	●	●
속도저감 시설		●	●	●	●	●	
공원·광장		사전정보제공		●			
		진입공간	●	●	●	●	●
		이동공간	●	●	●	●	●
		위생공간	●	●	●	●	●
		편의공간	●	●	●	●	●
		휴게공간	●	●	●	●	●
		안전시설		●	●		●
공공 건축물	접근 공간	대지출입구	●			●	●
		보행접근로	●	●	●	●	●
		주차장	●	●	●	●	●
	진입 공간	주출입구	●	●	●	●	●
		로비	●		●	●	
	이동 공간	복도	●	●	●	●	●
		실내출입문	●	●	●	●	
		경사로	●	●	●	●	●
		계단	●	●	●	●	●
		엘리베이터	●	●	●	●	●
		에스컬레이터	●	●	●	●	
		방재 및 피난시설	●	●		●	
	유도 및 안내		●				
	위생 공간	화장실	●	●	●	●	●
		다목적 화장실	●	●		●	●
수유실		●	●	●	●	●	
욕실, 샤워실, 탈의실		●	●	●	●	●	
공공 시설물						●	
공공 서비스						●	
공공 정보매체						●	●

■ 전략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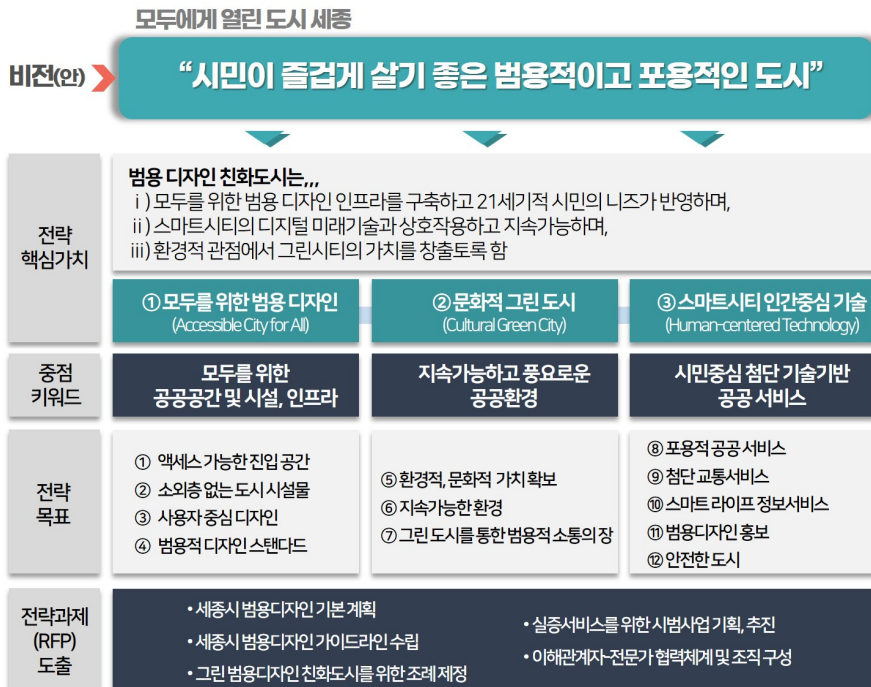
□ 비전(안)

- ①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21세기적 시민의 니즈가 반영하며,
- ②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미래기술과 상호작용하고 지속가능하며,
- ③ 환경적 관점에서 그린시티의 가치를 창출토록 함

⇒ 비전(안): “시민이 즐겁게 살기 좋은 범용적이고 포용적 도시”로 설정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함

□ 전략적 핵심가치

- ①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21세기적 시민의 니즈가 반영하고,
- ②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미래기술과 상호작용하여 지속가능하며,
- ③ 환경적 관점의 그린시티의 가치를 창출하는 범용의 개념을 세우고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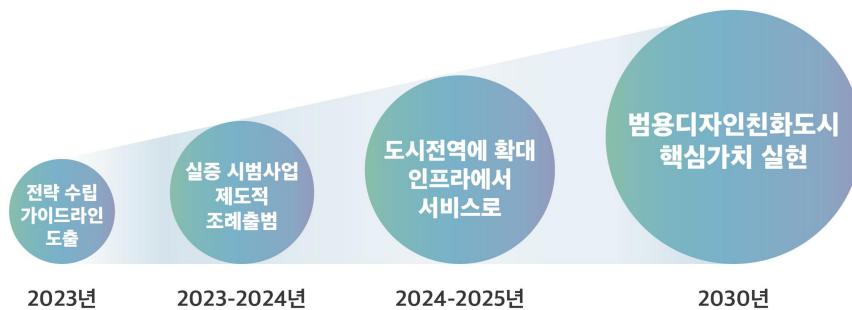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전략방향]

□ 세종시 차별화 전략

- 전략 1: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정수도 홍보 + 범용디자인 국제적 DB 구축 동시 모색
- 전략 2: 청년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
- 전략 3: 읍면-행복도시를 잇는 공통의 전략으로 추진
- 전략 4: 첨단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미래적 디자인 전략 추진
- 전략 5: 세종시 현안과제와 연계된 전략 수립

□ 친화도시 발전방향

- 1단계(~2023년): 전략 수립 및 가이드라인 도출
- 2단계(~2024년): 실증 시범사업, 제도적 틀 마련(조례 제정 등)
- 3단계(~2025년): 도시전역에 확대(인프라 중심 → 서비스 영역)
- 4단계(~2030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핵심가치 실현
 - 3단계(~2025년)까지가 단기적 방향이라면, 4단계(~2030년)를 장기적 방향으로 하여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음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발전방향]

■ 단계별 전략과제

-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단기(~2025년), 장기(~2030년)로 구분하여 과제를 제시함

□ 단기 과제

- 제도·조직적 기반 조성: 2022년 말 시행된 조례를 뒷받침하고, 세부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공고히 수립함
- 추진조직 구성(전담팀 구성): 범용디자인 관련 조례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야 함
 - 현재 세종시에는 공공디자인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 보완(확충)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범용디자인 관련 세종시 정책방향성과 전략내용 등을 제시하는 ‘(가칭)세종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세종시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도록 유념하며,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통합적으로 수립함
-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설계시 및 시설물 인프라 설치시 준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선포식 개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함
 - 조례 제정, 기본계획·가이드라인 등 그 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시작점으로 활용함
- 시범사업 실행: 실제 도시공간에 실증적 인프라를 사업화하여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전략 수정·보완에 반영함
- 농촌을 위한 범용디자인 시범사례 개발: 미래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 등 고령자 집중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별화된 ‘(가칭)특별 범용디자인 시범사례’와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함

□ 장기 전략과제

- **세종시 범용디자인센터 설립:** 향후 수립될 ‘(가칭)세종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가칭) 세종시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디자인적 니즈들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센터 설립은 세종시의 지역 대학과 연대하여 추진 가능하며, 세종시 공공건축가와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함
- **‘범용디자인 시민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지속가능한 범용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모두가 참여·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성인, 시니어 등 연령별 실천방안을 제시함
- **‘범용디자인 청년 레지던시’ 조성:**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디자이너·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를 조성함
 - 새로운 범용디자인사업을 기획하고 디자인상품 등 창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공간으로 활용
 - 새로운 범용디자인의 지역 청년 양성과 창업 지원 시범사례를 구축함(입주자 선정방식(예): 공모방식)
- **범용디자인 커머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범용디자인을 사업화하여 창업라인과 연결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홍보와 판매 등을 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 오프라인 플랫폼은 세종시 범용디자인센터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성과를 고려하여 상업적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범용디자인 도시내 시범사업 발굴·확산:** 단기적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을 확대, 소단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확대·추진함(공모·발굴, 예산 확보)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관련인프라를 세종시 전역에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함
- **다양한 관련 이벤트 기획 추진:** 범용디자인 국제 청년 페스티벌, 국제 청년 페스티벌, 국제 범용디자인 전시, 범용디자인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 전문가회의, 범용디자인 트리엔날레 등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7
1. 연구의 주요 내용	7
2. 연구 방법	7
3. 연구의 주안점	8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9
제2장 이론 및 동향 조사	11
제1절 범용(汎用)디자인이란?	13
1. 범용디자인	13
2.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20
제2절 제도 제정·운용 동향	23
1.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3
2.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5
제3절 관련연구 동향	26
제3장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31
제1절 세종시의 친화도시 조성전략	33
1. 여성친화도시	34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35
3. 고령친화도시	37

제2절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39
1.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추진 당위성	39
2.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40
제4장 사례 조사	45
제1절 타 지자체 동향 조사	47
1. 서울특별시	47
2. 제주도	53
3. 경기도	58
4. 검토 종합	62
제2절 국외 사례의 정책과 계획	64
1. 미국	64
2. 일본	66
3. 유럽	69
제3절 부문별 유형	71
1. 부문 설정 방향	71
2. 부문별 검토	71
3. 부문별 전후 비교 종합	76
제5장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전략	79
제1절 전략방향 설정	81
1. 비전과 가치	81
2. 추진 목표	81
제2절 범용디자인 제도적 전략	83
1.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	83
2.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84
제3절 세종시 차별화 전략	86
1. 차별화 전략의 방향	86
2. 차별화 전략 도출	88

제4절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91
1. 친화도시 발전방향	91
2. 로드맵의 핵심 이슈	92
3. 단계별 전략과제	95
제6장 결론	99
제1절 연구내용 종합	101
제2절 정책 제언	105
참고문헌	107

표 차례

[표 2-1] 범용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비교	22
[표 2-2]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2023년 3월)	24
[표 2-3] 무장애 도시 조례 제정현황(2023년 3월)	25
[표 2-4] 관련연구 동향	28
[표 3-1] 세종시의 친화도시 지정현황	33
[표 3-2] 세종시 범용디자인 기본조례의 구성	41
[표 3-3] 조례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 관련조항	42
[표 3-4] 조례의 시행 관련조항	43
[표 4-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51
[표 4-2]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설별 적용 규모	56
[표 4-3]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 추진사업	57
[표 4-4]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종합 비교	62
[표 4-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종합 비교	63
[표 4-6] 교토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67

그림 차례

[그림 1-1] 범용디자인 적용 사례	4
[그림 1-2]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그림 2-1] inclusive design(예)_ 폰트 크기 조절	14
[그림 2-2] 범용디자인의 확장(화장실)	15
[그림 2-3] 범용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대상 비교	21
[그림 3-1]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37
[그림 4-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 발전	48
[그림 4-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시상식	48
[그림 4-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목표 및 핵심가치	49
[그림 4-4]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비전과 추진방향	50
[그림 4-5]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원	52
[그림 4-6]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 발전	53
[그림 4-7]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54
[그림 4-8]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55
[그림 4-9]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구성체계	58
[그림 4-10]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중 ‘배려하는 디자인’	59
[그림 4-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60
[그림 4-1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예시)	61
[그림 4-13] Wesleyan University Performing Arts Center	65
[그림 4-14]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65
[그림 4-15] 2020 도쿄올림픽 가이드라인	66

[그림 4-16] 하네다공항 여객터미널 유니버설디자인	68
[그림 4-17] 후쿠오카시 나나쿠마선 유니버설디자인	69
[그림 4-18] 유럽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70
[그림 4-19] 세부 부문 설정	71
[그림 4-20] 보도의 적용 사례(한국, 영국)	72
[그림 4-21] 차도의 적용 사례(한국, 뉴질랜드)	72
[그림 4-22] 진입공간의 적용 사례(영국, 미국)	73
[그림 4-23] 공원시설의 적용 사례(미국)	73
[그림 4-24] 이동공간의 적용 사례(한국, 호주)	74
[그림 4-25] 위생공간의 적용 사례(한국)	74
[그림 4-26] 교통수단의 적용 사례(독일, 영국)	75
[그림 4-27] 개표구의 적용 사례(일본)	75
[그림 4-28] 부문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후 비교	77
[그림 5-1]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전략방향	82
[그림 5-2] 범용디자인 적용·기획사례(서울시, 공공건축물)	84
[그림 5-3] 제주도 기본계획의 여건 반영전략	85
[그림 5-4] 범용디자인 친화도시의 제도적 전략	85
[그림 5-5] 세종시만의 차별화 전략 방향	88
[그림 5-6]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발전방향	9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1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차별 없는 환경과 디자인 조성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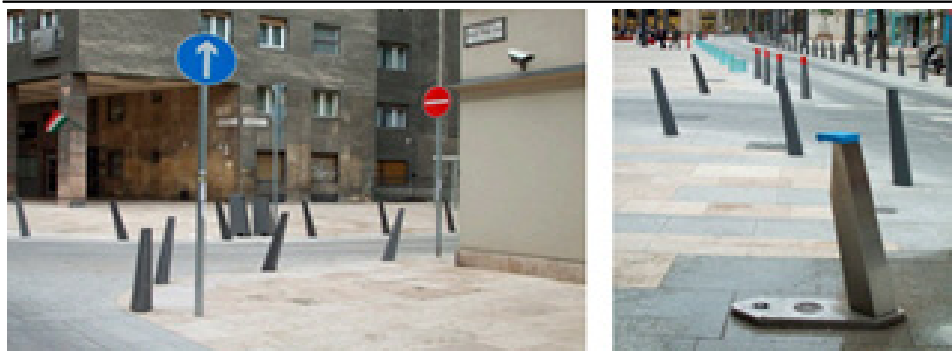
-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은 도시를 계획·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임
 - 이는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함
- 최근 각 지자체는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와 관련정책 도입·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임

□ 범용디자인의 중요성 증가

- ‘범용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개념임

* 범용디자인이란,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을 비롯한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의미함. 초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모든 사람을 위한 편리한 디자인으로 그 의미가 발전하여 사용됨

- 범용디자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미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설계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기본요소로 활발하게 반영하고 있음



생활환경: <영국> 런던의 경계석 없는 도로 설계



건축시설: <일본> 도쿄 신국립경기장의 장애 시민을 위한 관람석



관광인프라: <영국> 런던의 차별없는 포용적 도시 관광 안내 사이니지

[그림 1-1] 범용디자인 적용 사례

자료: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문화체육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최근 국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범용디자인을 제도화하고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임
 - 2023년 2월 기준으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기본계획과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종시의 본격적 움직임_ 준비작업 필요

- 세종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작업을 진행 중임
 - 이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용디자인 도시환경 구축과 유사한 맥락으로,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란, 영국의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혹은 미국의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포함하는 차별없이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의미함

- 2022년 초에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나, 세종시 의회와 관련부서는 종합적·장기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2022.12.20. 시행)

“세종시를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로 만들자”

세종시의회, 더 나은 세종시 위해 팔 걷었다

‘세종시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모색

- 세종시가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함을 고려한다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는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함
 - 범용디자인 개념이 도시 전반 인프라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성과 함께 특화된 핵심전략이 필요함
 - 또한, 첨단 스마트도시, 녹색도시, 그리고 행복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도시 조성에 활용가능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준비작업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세종시가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략방향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세종시 범용 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향후 실천방안 마련” 기초연구 수행

[그림 1-2]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주요 내용

- 범용디자인 제도 및 운영관련 조사(제도적 기반 마련)
 - 최근 범용디자인 제도 관련 국회, 정부(문체부, 행안부 등) 및 관련기관 동향 파악
 - 지자체 제도 도입 현황,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및 해외사례 분석 → 세종시 적용 가능한 방안(시사점) 도출
 - 범용 제도 운영관련 타 지자체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과 세종시 적용방안 도출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전략 제시
 - 세종시 운영방향 설정, 정책 추진전략, 로드맵 설정을 통한 장기적 방향성 제시,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작성방향 제시 등



2. 연구 방법

- 범용디자인 관련연구 및 국내외 사례조사, 관계부처 동향조사 정리
- 실무자·전문가 대상의 자문 및 의견 수렴

3. 연구의 주안점

- 오늘날 범용디자인은 일상생활, 생활용품에서부터 도로, 환경,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됨
 - 공간 조성 영역으로 의미를 한정하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로(보도, 차도),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등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건축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용디자인 적용을 일반화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간과 시설 조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세종시를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
-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법안과 최근의 지자체 조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공식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범용디자인’으로 사용함
 - 두 명칭간 의미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 일반적으로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 관련법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ii) 법규의 한글화 경향, iii) 한글도시로서의 이미지, iv) 세종시 관련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용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서술¹⁾함

1) 사례·동향 조사에서는 부득이하게 각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유니버설디자인) 그대로 정리하였음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세종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범용디자인 제도 도입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및 필요성, 목적 • 내용·방법, 기대효과 등
제2장 이론 및 동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디자인 관련 동향 • 관련 법·제도 및 지자체 조례 제정 동향 등
제3장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친화도시 조성전략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제4장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동향 조사 • 유형 구분 및 검토
제5장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설정 • 제도적 추진방안·차별화 전략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제6장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내용 종합, 정책 제언

이론 및 동향 조사

제1절 범용(汎用)디자인이란?

제2절 제도 제정·운영 동향

제3절 관련연구 동향

2장

제2장 이론 및 동향 조사

제1절 범용(汎用)디자인이란?

1. 범용디자인

1) 개념

- 디자인이란? 주어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실제화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함(두산백과사전)
 - 목적: 인간의 행복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하기 위한
 - 종류: 시각 디자인(visual design),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환경 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 디자인의 의미 변화 >

- 전통적으로는 미적인 것과 실용적(기능적)인 것을 분리하였으나, 점차 이를 혼합한 형태의 복합적 의미로 변화함
 - 좁은 의미(일반적 의미): 사물의 형태와 색
 - 넓은 의미: 특정 목표를 향한 이념과 체계 등을 창조하는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설계 + 계획 + 사고방식)

- 범용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함
 - 차별과 제약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뜻하며,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함을 뜻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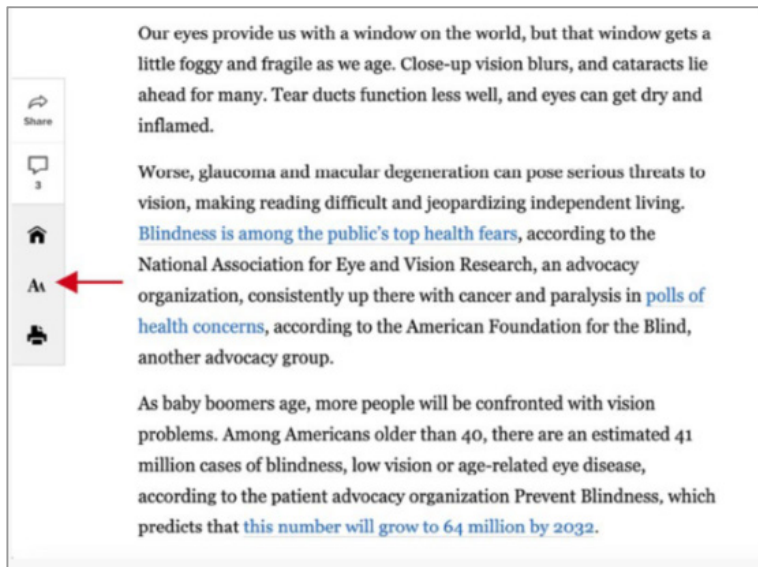
2) ‘범용디자인’은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유니버설디자인’을 한글화한 명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순화어(다듬은 말)로 범용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음 (<https://www.korean.go.kr>)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 건강, 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이다.”

- 에드워드 스타인펠드, 조다나 메이젤

□ 유사용어 소개

- 범용디자인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다양한 명칭이 활용되고 있음
 - inclusive design: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는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으로, 주로 웹디자인에서 사용됨(예: 디자인 패턴, 폰트 크기 조절을 통한 가독성 개선 등)
 - design for all: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미를 지님
- inclusive design과 design for all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기반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고 배려하는 사고방식으로서, 유럽에서는 범용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그림 2-1] inclusive design(예)_ 폰트 크기 조절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eyoou>)

2) 도입과 적용

(1) 도입

- 범용디자인은 미국, 유럽 등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특히, 2차 세계대전과 1960년대 월남전 이후 장애인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됨
 - 당시 기존 건축물 접근과 상품 사용에 대하여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들 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함
- 1970년대 초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인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처음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됨
-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를 전후로 전해졌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 활용되었음

(2) 의미의 확장

- 범용디자인 도입 초기에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을 강조하여 진행³⁾되었으나, 이후 ‘모든 사람’을 위한 편리한 디자인으로 그 의미가 확장·발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림 2-2] 범용디자인의 확장(화장실)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ingksh>), 지방자치24 (<http://localarea24.tistory.com>)

3)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처음 제기함

- 이는 장애를 지닌 상대방을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분 짓고 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리어 프리 → 범용디자인”으로의 확장 형태라 할 수 있음
 - 예: 장애인 화장실 → 다목적 화장실(영유아 동반 가족,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 대상)_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예: 알기 쉬운 안내표지 설치_ 안내판 크기를 확대하고, 고령자나 외국인도 식별하기 쉬운 그림(픽토그램)을 활용
- 범용디자인에서의 ‘모든 사람’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일반인 중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를 모두 포함함
 - 기존의 개념이 ‘평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벗어난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범용디자인은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한 맞춤 디자인으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3) 가치와 원칙

- 범용디자인은 모두가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도입된 개념임
 - 기존의 디자인이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보통’이라는 틀을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반면에, 범용디자인은 그 보통의 틀을 ‘깨뜨린’ 것이라 할 수 있음
- 즉,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요구’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의미함

〈 로널드 메이스의 유니버설디자인 활동에 대하여 〉

- 1942년 출생. 미국의 건축가, 노스캐롤라이나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소장. 1급 중증 장애인(척수성 소아마비)
- 유니버설디자인(UD) 개념의 도입자. 자신의 철학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용어를 처음 활용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졸업 이후, ‘건물의 접근성 법안’ 제정(초안 작성)에 기여
-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처음 주창
- 유니버설디자인의 추구: 장애요소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환경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인본주의, 인간애)
- 제품의 생산, 제조의 효율성, 디자인의 외관에 앞서, 사용자의 편리함에 최우선을 둠 → 인간애에서 비롯된 사고의 전환과 가치 실현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좋은 지도자는 많지만 로널드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 세계에서 활약한 인물은 없었다” - 크리스 팔라메스

“우리는 흔히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상’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능숙하고, 독립적이라 여겨진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디자이너들은 모든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것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로널드 메이스 -

자료: <https://blog.naver.com/haru-art/222022181946>

□ 범용디자인의 원칙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초기에 범용디자인의 4 원칙을 제시하였음

〈 범용디자인의 초기 4원칙 〉

- i) 기능적 지원성(Supportive Design)
- ii) 수용성(Adaptable Design)
- iii) 접근성(Accessible Design)
- iv) 안정성(Safety Design)

- 이 원칙은 이후에 세분화되어 7원칙으로 확대·발전함⁴⁾
- ① **동등한 사용(equitable use)**: 다른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
- ② **사용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 광범하고 다양한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 반영_ 사용법을 각자 고를 수 있도록 함
-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use)**: 알기 쉬운 사용법_ 사용자 경험과 지식, 언어기술 등에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워야 함
- ④ **이해하기 쉬운 사용정보(perceptible information)**: 사용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_ 사용자의 지각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함
- ⑤ **사고방지와 오작동에 대한 포용(tolerance for error)**: 사고, 위험가능성을 방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⑥ **최소의 신체적 부담(low physical effort)**: 피로도가 높지 않고, 적은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⑦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체형, 능력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4) <https://blog.naver.com/2011pjh/222905624384>

4) 적용의 고민

- 우리나라에 범용디자인이 처음 도입된 이후 범용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공간과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산발적·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법규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일된 개념과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함에 기인함

□ 디자인 적용의 제한_ 기존 시설·환경에 적용의 어려움

- 시설이나 공간 조성의 초기 단계부터 범용디자인 개념을 적용함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보완함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 기존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제약이 있는 경우, 기존 이용자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추가 공사 또는 시설 설치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함
 - 예: 경사로 보완, 별도의 (다목적) 화장실 설치, 안내판 개선 등
- ⇒ 신규 공간 조성이나, 건물 신축시 범용디자인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기존 건축물·시설 보완시 기준에 부합토록 함_ 지침·가이드라인 필요

□ 갈등의 소지_ 역차별 등 논란

- 범용디자인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지만, 도입 초기이거나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부 일반시민들로부터 불만 또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예: 주차장의 장애인 공간 증가, 지하철 임산부석 설치 등
- 이러한 논란은 일시적 또는 국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 대부분 디자인 개념이 보편화되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 범용디자인이 '특정층만을 배려'하기 위함이 아닌, '모두가 접근가능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반화되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함

2.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1) 개념

-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라는 용어는 개념적으로나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화된 용어는 아님
 - 범용디자인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도시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접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 설계를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함
 - 영국의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 혹은 미국의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을 포함하는 차별없이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와도 일맥상통함



2) 조성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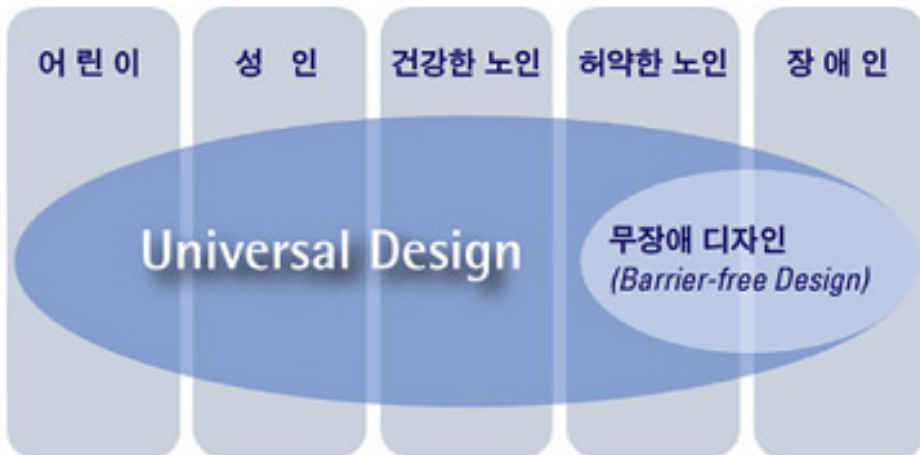
- 세종시는 정책적으로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지향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화도시’의 개념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선도적·모범적 도시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음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는 범용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화된 환경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고령자를 배려한 배리어 프리까지 포함하여,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일반화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참고: 배리어 프리 디자인(BF; barrier-free design)

- 배리어 프리 디자인이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디자인을 의미함 (= 무장애 디자인)
- 배리어 프리 디자인은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범용디자인 보다는 대상범위가 제한적임



[그림 2-3] 범용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대상 비교

자료: webzine 프리즘

[표 2-1] 범용디자인과 배리어 프리 디자인의 비교

구분	범용디자인	무장애 디자인(BF)
개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만들기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	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대상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건축·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시설, 설비, 정보)의 장애물 제거
법적 근거	관련법 없음 (일부 지자체 조례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제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2010 제정)
태생 배경	BF의 장애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 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1997년 North Carolina 주립대학 Ronald L. Mace가 현재와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의를 완성하고 원칙을 설정	1990년대에 관련 이론이 정립되며, 건축을 중심으로 BF라고 명명
	법적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의 필요에서 출발	장애인 이동 및 접근을 위해 미국의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근간하여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에서 비롯해 주고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해 환경과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	한국에서도 ADA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마련
추세	무장애(BF)의 범위 확대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로, 물리적 공간을 포함하여 제품과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디자인’ 개념으로 발전	

제2절 제도 제정·운용 동향

1.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범용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은 [표 2-2]에 정리한 내용과 같음
 - 2022~23년에는 세종시를 포함하여 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반면에, 2021년에는 3개 지자체(광역시 2, 기초 1)에서는 조례를 폐지(통합)⁵⁾함
 - 2023년 3월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조례 시행중 (광역시 7, 기초 25)
 - 조례 폐지(통합)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자인 관련조례 통합 권고에 따른 것으로, 범용디자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의미가 축소·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는 범용디자인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3개 분야의 디자인 관련사항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 i) 디자인 관련 조례별 운영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ii)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모법의 부재에 따른 실행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임
 - 조례의 통합은 아직 모법이 부재한 범용디자인에 대한 실행력 제고(재정 투입 등 사업 근거로 활용)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범용디자인의 관심을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공공디자인법」에는 아직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5)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이상 광역 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기초 지자체)가 2021년에 조례를 통폐합하였음

[표 2-2]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2023년 3월)

구분	자치단체	조례명	시행	비고
광역 (6개)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 7. 15.	
	경상남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9. 6.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1. 2. 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1. 2. 19.	폐지(통합)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0. 5. 2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21. 7. 2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	'22. 12. 20.	
	전라북도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1. 11. 3.	폐지(통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1. 12. 31.	
기초 (21개)	공주시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9. 11. 7.	
	김포시	김포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1. 12. 31.	
	과천시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3. 11.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22. 1. 10.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7. 6.	
	광주시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9. 3. 15.	
	동두천시	동두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1. 6. 30.	
	대전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	'21. 10. 8.	폐지(통합)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2. 20.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조례	'22. 10. 31.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7. 17.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12. 31.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9. 24.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1. 12. 29.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9. 9. 20.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2. 7. 7.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22. 9. 15.	
	순천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1. 7. 5.	
	안양시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9. 10. 28.	
	용인시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7. 9. 29.	
	의정부시	의정부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2. 2. 9.	
	천안시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 6. 22.	
	하남시	하남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9. 4. 10.	
	화성시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17. 11. 21.	
	시흥시	시흥시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조례	'22. 12. 22.	
	포항시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2. 12. 30.	

2.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범용디자인과 관련성이 높은 무장애 도시(BF) 조성 관련조례 제정현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음
-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성북·강북구를 포함하여, 강원 속초, 경기 부천 등 조례 제정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충청권에서는 충북 충주와 충남 태안이 조례를 시행 중이며, 세종시는 별도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표 2-3] 무장애 도시 조례 제정현황(2023년 3월)

구분	자치단체	조례명	시행
기초 (21개)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2. 04. 15.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 05. 06.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21. 11. 09.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2. 08. 16.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03. 19.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9. 11. 25.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12. 13.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09. 28.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19. 10. 3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12. 29.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14. 10. 15.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07. 0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19. 02. 12.
	서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23. 01. 01.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2. 12. 3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08. 11.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19. 04. 16.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07. 15.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1. 08. 13.
	충청남도 충주시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2. 05. 06.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2. 02. 25.

제3절 관련연구 동향

- 범용디자인과 관련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제도적 측면 보다는 디자인의 적용과 평가, 유형별 사례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임
 - 연구의 동향 분석 결과, 범용디자인에 기반하고 있으나,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다수 관찰됨
- 여기에서는 적용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 연구 1_ 고령자 및 장애인시설

- 하정민 외(2022)_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평가기준·지표를 도출하고, 실사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경로당의 디자인 적용 범위 및 방향성을 제시함

- 서울시 경로당 대상_ 디자인 가이드북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 진행
 - 대상지 현황분석 결과_ 경로당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아직 미흡
- 안전부분_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 적용 불가능 항목 다수 관찰
- 디자인 평가 기준 보완·정비 → 경로당의 효율적 적용 필요
- 디자인 적용_ 연령대와 신체 건강지수 기준 → 세분화 필요

□ 연구 2_ 일반가구 + 고령자 및 장애인시설

- 신은경 외(2015)_ 노인의 신체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상세 치수 및 재료에 대해 제시함

- 아파트 모델하우스 대상_ 일반가구와 노인 및 장애인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 대상으로, 아파트 단위세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실태 파악
- 적용 실태 파악_ 아파트 대상의 공간별 디자인 적용 실태와 개선 가능성 파악
- 평가 및 분석_ 아파트 단지 대상의 실내·외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디자인 적용 정도를 평가·분석 실시
- 제안사항
 - (필요시)작업대 하부의 수납장 제거_ 기준에 맞는 휠체어 공간 확보
 - 화장실 출입문 보완_ 고령자와 장애인의 낙상 방지, 밖여닫이나 미닫이문 제안

□ 연구 3_ 교육시설

- 남지연 외(2022)_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학로 주변을 실태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의 시설물 및 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함

- 통학로 디자인에 관한 개념 및 요소 정리
-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_ 보행환경 불편사항 파악, 통학로 시설물의 문제점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디자인 원칙을 활용한 개선방안 및 변화 전망
 - 디자인 원칙: 보편적인 사용, 접근 가능성, 인지 가능성, 안전한 디자인, 기능 제공, 쾌적한 환경 등
 - 보행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 제시 및 변화 전망
- 연구결과
 - 학생,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기반한 설문조사 진행 → 통학로의 주된 위험요소 파악
 - 개선사례 조사와 비교연구 진행 → 통학로 주변의 디자인 개선점 도출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환경·시설물 대상의 디자인 개선방안 제안

□ 연구 4_ 외부 공간

- 김효진 외(2022)_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평가 분석표 작성_ 문헌조사(서울시 가이드라인 등) 및 디자인 원칙에 기반한 근린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 분석표 구성
- 대상지 선정_ 원주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 분석표를 기준으로 근린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분석 → 개선방안 도출
- 연구결과
 - 공원의 조성연도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에 차이 → 오래된 공원의 경우 지속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적용 영역별 차이_ 지속성 > 쾌적성 > 편리성, 정확성 > 안전성 > 기능성 순
 - 도시공원 조성에 적용될 체크리스트 보완 및 특히 지속성(공원 관리)을 강화할 수 있는 항목 개발 필요

□ 연구 5_ 문화시설

- 유정 외(2022)_ 사례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을 분석하고, 공공공간 내 유니버설디자인 특성을 파악함

-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이 갖는 보편적 공공공간 특성(4가지)_접근성, 안전성, 수용성, 지원성 등
 - 공공공간 디자인 특성점수 비교_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반면, 지원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수용성의 관점_ 주변과 다른 소재·색상으로 강조 → 점선블록과 음향해석장치를 활용(엘리베이터, 계단, 실내 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등에 설치) → 시각장애인 이용자 고려효과 높음
 - 지원성의 관점_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 설치 → 복도, 계단 등 손잡이의 보완·설치 필요

[표 2-4] 관련연구 동향

구분	연구자	연구명	년도
고령자 및 장애인	신하나 외4인	서울시 노인주거환경 니즈를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환경 사용성 평가 분석	2011
	임채숙	한국형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유니버설 공간·환 경 디자인 지침 제안	2014
	안상녕 외1인	도시주거단지에서 노인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유니버설디 자인에 관한 연구	2019
	진고은 외1인	노인 외출편의를 위한 유니버설관점의 지하철공공시설 디 자인 연구	2019
	하정민 외2인	서울시 경로당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에 관한 연구	2022
주거 시설	박정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미국노인들의 주거실태 및 요구	2010
	오찬옥	소형 아파트 주거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연구	2013
	이승은	신체장애인 주택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4
	신은경 외2인	아파트 단위세대 계획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에 관 한 연구	2015
	박은정 외1인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적정 주거공간 면적	2020

[표 2-4] 관련연구 동향 (계속)

구분	연구자	연구명	년도
교육 시설	김보애 외1인	통합교육학교 성공사례에 나타난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2014
	이선영 외1인	초등학교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6
	성기창	학교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2018
	고애경 외1인	유치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구	2019
	남지연 외1인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본 통학로 공공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2
외부 공간	박민지 외1인	가로 휴게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 연구	2013
	최승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횡단시설에 관한 연구	2018
	장하영 외2인	유니버설디자인 컨셉을 적용한 무장애통합놀이터 사례분석	2018
	정상윤 외1인	보행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2018
	김효진 외2인	원주시 근린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2022
문화 시설	박선희 외2인	복합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연구	2020
	강병곤 외2인	공연장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2021
	김규리 외2인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2021
	백설 외2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UD)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22
	유정 외1인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연구	2022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제1절 세종시의 친화도시 조성전략

제2절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3장

제3장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제1절 세종시의 친화도시 조성전략

- 세종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화도시’ 조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친화도시’ 전략은 국가의 선도적·모범적 도시로서 미래 세종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전략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범용디자인의 개념이 ‘모든 시민의 삶을 위한 도시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일반시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배려가 필요한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음
 - ‘친화도시 조성전략’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범용디자인과 연결점이 많은 전략으로, 세부내용과 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여기에서는 그 동안 세종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친화도시 조성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함

[표 3-1] 세종시의 친화도시 지정현황

친화도시명	최초지정년도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2016.12.	○ 2021.12.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아동친화도시	2017.9.	○ 2022.12.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고령친화도시	2020.3.	○ 3년간, 8대 영역 52개 실행과제 수행

1. 여성친화도시

□ 개념

- 정의: 지역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는 참여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

□ 인증 관련

- 인증 및 단계구성: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며, '1단계(진입) → 2단계(발전) → 3단계(선도)'로 구성
- 인증기간: 5년 (기간 경과하면 다음 인증단계로의 지정절차 진행)



□ 주요 성과

- 1단계 지정: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
 - 주요 성과: 여성위원 비중 확대(32.4% → 45.8%),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률 향상(12.9% → 23.6%), 경력단절여성 비율 개선(27.3% → 2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4개소 → 10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충(2개소 → 15개소) 등
- 2단계 지정: 2021년 12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2단계 지정
 - 주요 추진사업: 양성평등 담당관제 신설, 양성평등한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 여성 자립·성장·네트워크 플랫폼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세종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⁶⁾함
 - 불평등과 차별이 없이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1996년 유엔회의에서의 최초 발의 이후, 2000년 유니세프 리서치 센터(이탈리아)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여 전 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함

□ 조례 제정

- 세종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세종 아동친화도시조례」)를 제정함(2022.12.20. 시행)
 - 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과 아동의 안전·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조성,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범용디자인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 (조례 제6조 ~ 제8조)

□ 인증 관련

- 세종시는 2017년 9월 처음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함(인증기간: ~ 2025년 12월 29일)
 - 비전: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세종”
 - 상위단계 인증 이후, 17개 정책과제와 37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임
 - 주요 사업: 아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6) 세종시 홈페이지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 참조

〈 「세종 아동친화도시조례」의 관련조항 〉

제6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언어, 인종, 종교,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노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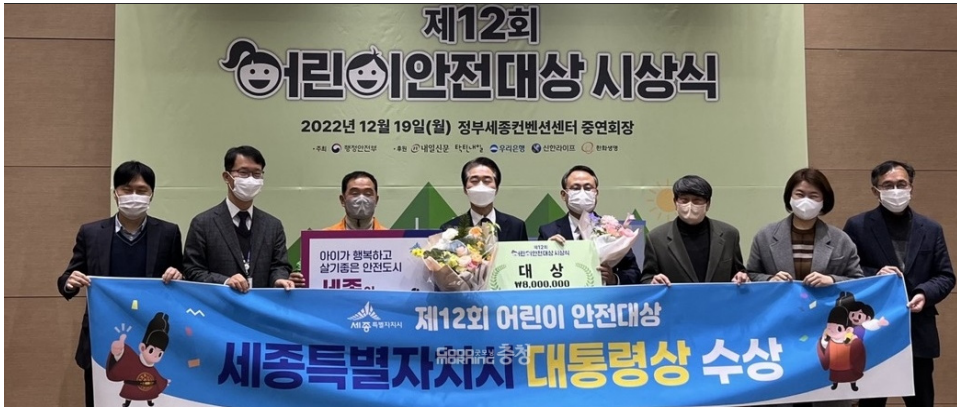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 주요 성과

- 세종시는 2022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함
 - 이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결과물로, 도시 위상을 높인 성과로 평가됨
 - 아동친화도시 성과 중 범용디자인 관련사항: 통학차량 승하차구역(드롭존) 설계, 특화 놀이터 조성, 어린이 디자인단 구성·운영,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등

< 어린이 안전대상이란? >

-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
- 2022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어린이 예방활동 우수사례 중심)
 - 응모기간: 7월 25일 ~ 9월 16일
 - 심사과정: 서면 평가, 현장실사·발표·온라인 국민투표 심사를 거쳐 선정



[그림 3-1]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자료: <http://www.goodmorningcc.com/news/userArticlePhoto.html>

3. 고령친화도시

□ 개념

- 정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함
 -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시민이 모두 함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함

□ 인증 관련

- 승인: 세계보건기구(WHO)가 진행하며, 세종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회원도시에 가입함

□ 조례 제정

-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이하 「세종 고령친화도시조례」)를 제정함(시행 2017.12.11.)
 - 범용디자인 관련조항: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제12조), 생활환경 편의증진(제14조) 등

〈 「세종 고령친화도시조례」의 관련조항 〉

제12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제14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주요 성과

- 2020년 3월 고령친화도시 인증 이후,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3개년 실행계획(2020~2022)’을 통해 8대 영역 52개 실행과제를 추진함
- 고령친화도시 2기에는 5개년(2023년~2027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노년, 행복한 미래수도 세종”을 비전7)으로, 추진할 예정임
 - 8대 영역(여가, 존중, 소통, 환경, 주거, 교통, 일자리, 건강·돌봄), 50개 실행과제로 구성

7) 2023년 2월 현재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재인증을 신청한 상태임(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참조)

제2절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1.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추진 당위성

1) 필요성

- 도시민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기본적인 도시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도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과정에 기본요소로 적극 반영해 왔음

2) 현황

- 최근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송파구 등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한 이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을 고려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소외 없는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함

3) 시급성

- 세종시의 도시 전반 인프라와 시민 생활에 끼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세종시만의 특화된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함
-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 세종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세종시의 조성작업은 크게 i) 제도적 정비, ii) 관련계획 수립, iii) 시행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세종시의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

1.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 조례 제정
2.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방안 제시 ≡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3.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및 시민참여 유도 ≡ 시범사업 실시

1) 제도적 정비_ 기본 조례 제정

- 디자인과 관련조례는 크게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종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시행해 왔으며,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함
-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제1조)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주요 구성: 목적·정의, 기본원칙·적용범위, 기본계획·시행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범용디자인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시행, 교육 및 홍보 등
- 조례에서는 범용디자인의 기본 원칙(제4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세종시 범용디자인의 기본 원칙(제4조) 》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세종시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무장애 디자인의 적용 근거까지 마련하게 됨
 - 그러나,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자인 관련 조례의 별도 운영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문제, 실행력의 한계,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조례 권고 등으로 별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세종시의 제도적 정비(조례 제정)에 의미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둠

[표 3-2] 세종시 범용디자인 기본조례의 구성

제1조(목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의)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책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기본원칙)	제13조(범용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적용범위)	제14조(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5조(전문가의 참여)
제7조(기본계획)	제1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시행계획)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제18조(시행규칙)

2) 관련계획 수립_ 기본계획 + 가이드라인

- 세종시는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작성·시행할 예정임
- 조례에 제시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관련사항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3]와 같음

[표 3-3] 조례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 관련조항

조항	내 용
기본계획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용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연간 목표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민 또는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시행_ 시범사업 등

- 제도의 시행은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등 관련계획이 마련된 이후 진행될 사안으로, i)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포함), ii) 전담기관(가칭: 범용디자인센터) 설치, iii) 시범사업 실시, iv) 교육·홍보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표 3-4] 참조)
-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중심으로,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되면,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임

[표 3-4] 조례의 시행 관련조항

조항	내 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의 적용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4. 제9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5. 제1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이하 생략 -
범용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제13조)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용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적용사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제14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4. 범용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5.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참여와 관계기관 협력 지원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도입과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이하 생략 -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제14조)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공모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사례 조사

제1절 타 지자체 동향 조사

제2절 국외 사례의 정책과 계획

제3절 부문별 유형

4장

제4장 사례 조사

제1절 타 지자체 동향 조사

- 여기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사례 지자체의 경우, 범용디자인이 아닌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본문에 정리하였음

1. 서울특별시

1) 정책 방향

- 서울특별시는 2013년 이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본격 추진함
 - 목적: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2016년 당시 조례의 목적)
- 가이드라인 개발: 2013년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이후, 2017년에는 전 영역으로 확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조례 제정: 2016년 5월에 처음으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함
- 계획 수립: 2018년 ‘제1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2020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함
- 디자인센터 설치·운영: 2020년부터 전담기구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전국 최초)
- 제도 적용: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2021년부터 확대 운영함
 - 2021년부터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의무화 함(조례 제11조 지침의 준수 등)

- 2020년 12월 15일에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선언’을 발표함
 - 지향점: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 중심 도시’



[그림 4-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 발전

자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2021년 이후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Seoul Universal Design Awards)’ 시상식을 개최함(주최_서울특별시, 주관_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후원_서울특별시의회)
 - 목표·취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서비스 실천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업적을 격려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적 디자인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
 - 대상: 전국 단위 기관·기업 (2022년 총 9점 시상_서울시장상 3, 서울시의회회장상 2, UDC센터장상 4)
 - 공모 분야: 공공·민간 부문으로 구분_ i) 최근 3년 내 완료된 공원·광장·건축물·공간, ii) 사용자 서비스 개선사례_공간 운영체계, 매뉴얼, 서비스 프로그램, 직원·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



[그림 4-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시상식

자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www.sudc.or.kr/main.do>)

2) 기본·종합계획

- ‘제1차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총 8장으로 구성됨
 - ‘I. 연구 개요’, ‘II. 현황 진단’, ‘III.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방향’, ‘IV. 전략적 실행방안’, ‘V.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선도과제’, ‘VI. 시범대상지 계획’, ‘VII. 보행맵’, ‘VIII. 결론’ 등
- 기본계획에서는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전략별 실행방안, 선도과제 등 기본방향을 도출함
 - 비전: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중심 도시,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 목표: 탈산업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 연령·성별·장애유무·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환경 조성
 - 추진전략: ① 생활편의 증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② 안전도시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축, ③ 공유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④ 공공 가치 혁신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감을 위한 기반 확립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10대 원칙을 제시함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10대 원칙’: ① 공존의 UD 도시, ② 공감의 UD 도시, ③ 공유의 UD 도시, ④ 공평의 UD 도시, ⑤ 포용의 UD 도시, ⑥ 생활안전 UD 도시, ⑦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UD 도시, ⑧ 도시공간이 숨쉬는 UD 도시, ⑨ 혁신적 글로벌·스마트 UD 도시, ⑩ 지속가능한 UD 도시



[그림 4-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목표 및 핵심가치

자료: 서울특별시(2018),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3)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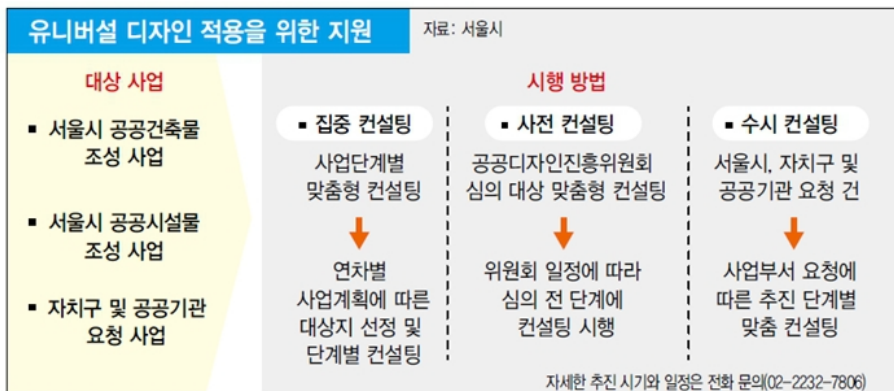
- 목적: 공공환경·건축물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 및 개선하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참여와 필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
- 목표: 공공환경과 건축물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수준을 제시함
- 원칙: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 즉, 사회적·물리적 장벽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원칙으로 함
- 적용범위: 3개 부문(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7개 영역, 29개 세부 항목으로 설정함

[표 4-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부 문	영 역	세 부 항 목	주 요 내 용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보행공간
		차량진입구역	대지 내 진입구역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전면부 영역, 공개공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상충구간, 안전시설, 이용편의시설
		시설물 구역	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에 따른 포장 기준, 시설물, 안내시설, 여객시설 정류장
	차도	국지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횡단보도 속도저감 방안	횡단보도 설치, 진입부, 고원식 교차로, 교통섬 차도 폭 좁힘, 도로포장 변화, 과속방지턱
공원·광장	진입공간	접근로, 주출입구, 주차장	
	이동공간	산책로	
	위생공간	화장실	
	편의공간	편의시설, 안내시설	
	휴게공간	휴게구역, 놀이터	
공공 건축물	접근 공간	대지출입구	위치, 안내
		보행접근로	유효폭과 높이, 바닥마감, 보차분리, 유도 및 안내
		주차장	위치, 주차구역, 유도 및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 공간	주출입구	위치 및 전면공간, 주출입문, 유도 및 안전
		로비	접수·안내데스크 및 유도·안내
	이동 공간	복도	유도폭 및 보행장애물, 마감, 손잡이, 유도 및 안내
		실내출입문	형태, 문의 구조, 유도 및 안내
		경사로	형태 및 구조, 안전 및 안내
		계단	형태, 구조, 안전 및 식별
		엘리베이터	승강로비, 구조, 조작설비, 유도 및 안내
		에스컬레이터	구조, 승강장
	위생 공간	방재 및 피난시설	방재계획, 경보 및 피난시설
		화장실	접근 및 안내, 마감 및 조명, 안전 및 범죄예방, 대변기부스, 위생기구, 영유아 설비
		다목적 화장실	기능 및 구조, 설비
수유실		위치 및 접근, 구조 및 설비	
욕실, 샤워실, 탈의실		일반샤워, 욕실, 샤워실, 탈의실	

4)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제20조와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2020년 6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함
- 목적: 공공건축물·시설물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지원함
 - 주요 활동: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컨설팅
 - 대상사업: 서울시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서울시 공공시설물 조성사업, 자치구 및 공공기관 요청사업 등
 - 적용범위: 보도, 공원, 건축물, 교통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다양한 공간·시설의 주 이용자(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행태를 기반으로 사업단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함
 - 컨설팅 유형과 사업: 집중 컨설팅(개보수 시설, 신·증·개축 시설 대상), 사전 컨설팅(심의 전 컨설팅), 수시 컨설팅(시, 자치구 요청사업)



[그림 4-5]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원

자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www.sudc.or.kr/main.do>)

-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정책연구,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정보 구축, 홍보·교육,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제주도

1) 정책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지속 추진 중임
 - 목적: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함(2014년 당시 조례의 목적)
 - 조례 제정: 2014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시행
-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종합계획과 조례를 토대로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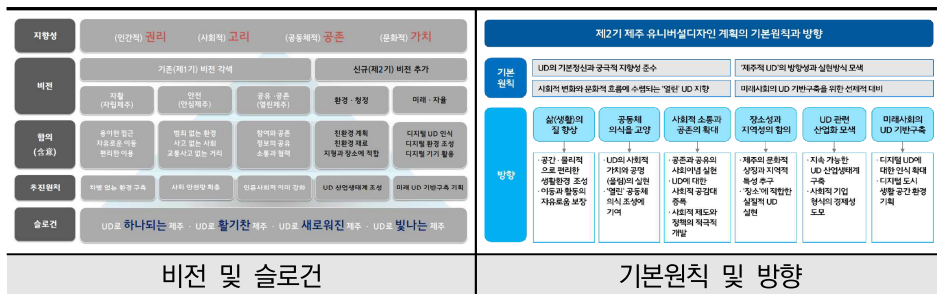
[그림 4-6]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제도 발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ju.go.kr/index.htm>)

- 담당 조직 설치·운영: 2018년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를 신설하고, 유니버설디자인팀도 함께 신설하여 운영함
- 2019년부터는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시범사업, 엑스포 개최, 민간 확산사업, 홍보 및 활성화 사업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

2) 기본·종합계획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은 7장으로 구성됨
 - 구성: 'I. 개요', 'II.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본 현황', 'III.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현황 및 분석', 'IV.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국내·외 동향', 'V.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및 방향', 'VI.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제안 및 적용 방안', 'VII. 제언' 등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비전과 슬로건, 기본원칙, 기본방향 등을 도출함
 - 비전: 자활, 안전, 공유·공존, 환경·청정, 미래·자율
 - 슬로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나되는·활기찬·새로워진·빛나는 제주
 - 기본원칙: UD의 기본정신과 궁극적 지향성 준수, '제주적 UD'의 방향성과 실현방식 모색,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흐름에 수렴되는 '열린' UD 지향, 미래사회의 UD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비
 - 기본방향: 교육 및 홍보,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회적 서비스 확대, 계획 및 디자인 기법 개발, 정보역량 강화·미래 UD 대응, 산업생태계 조성
- 제2기 계획에서는 시범사업 및 적용방안에 대해 일반사업 제안, 중점사업 제안, 시범사업 적용방안, 시범사업 사례계획으로 구분 제시함
 - 그 결과 제1기 기본계획에 비해 비전과 시범사업의 기획범위가 확대되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일부 확보하였다는 특징을 보임



[그림 4-7]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비전 및 방향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2기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3) 가이드라인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법규 및 지침, BF 인증 기준, 기타 기준 및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8원칙을 수립함
- 8원칙: ① 접근성, ② 안전성, ③ 포용성, ④ 인지성, ⑤ 융통성, ⑥ 쾌적성, ⑦ 지역성, ⑧ 미래성



[그림 4-8]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2기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을 시설별 및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의무·권장 기준을 제시함
 - 시설: 공공청사,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연·체육, 전시장 등 17개 시설
 - 항목: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축물 출입구 등 20개 항목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시설별 규모는 [표 4-2]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표 4-2]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설별 적용 규모

구분		비고
업무시설	공공청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상업시설	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등 관람적 바닥면적 300㎡ 이상인 시설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교육시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제외)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도서관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숙박시설	일반호텔	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호텔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노인 관련	경로당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의료시설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수련시설	수련시설	생활권, 자연권수련시설
체육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인 시설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
	휴게소	휴게소로 바닥면적 300㎡ 이상인 시설
교통시설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주거시설	공용/주거동	주택단지 외부공간 및 주거동 건물에만 적용 단, 장애인전용주택 세대가 있을 시에는 별도 세대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2기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디자인센터 설립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기본계획 당시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유니버설디자인 관심 및 욕구 충족 등을 위한 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별도 설립되지 못한 상태임(2023년 3월 기준)

[표 4-3]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 추진사업

주요 사업	세부 사업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 출범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과 유니버설디자인팀 구축 도시디자인담당관 성과 및 평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공공시범사업	서귀포초등학교 주변 도로 (2018), 탑동 제2화장실 리모델링 (2019), 탑동공연장 (2019), 탑동광장 (2020) 외
유니버설디자인 민간 확산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TV 캠페인 광고,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워크숍,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중심의 전시회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역량 강화 사업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길라잡이 발간 (2020)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조성 (2020)
2019 제주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UD-spot’ 시민평가단 운영 만족도 조사 및 행사 평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2기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음 (2020년 완공)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개요 〉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번지 인근(사업비: 240백만원)
- 완공년도: 2020년(안전체험관 개관(2020.10.))
- 기능·역할: 유니버설디자인 홍보와 체험에 대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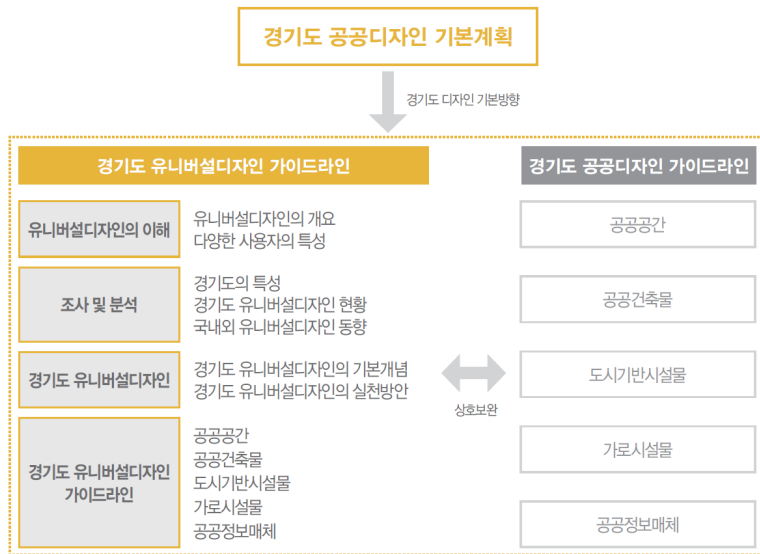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뉴스(<https://www.gukjenews.com/news>)

3. 경기도

1) 정책 방향

- 경기도는 2013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목적: “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조례 제1조)
-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상 디자인 기본방향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호 보완하는 구성체계를 따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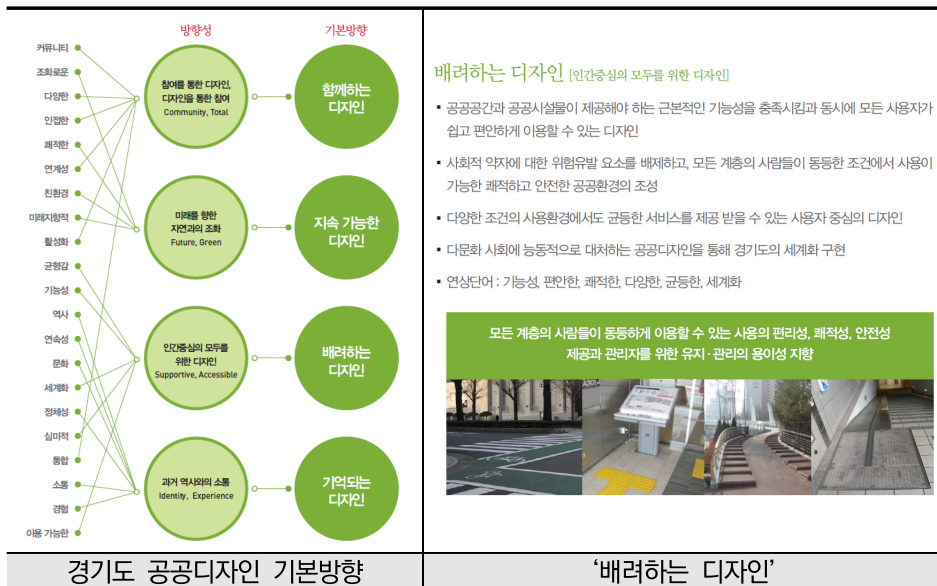
[그림 4-9]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구성체계

자료: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담당 조직 설치·운영: 2023년 3월 기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 추진단 건축디자인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로는 공공디자인에 포함됨

2) 기본·종합계획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따르고 있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살펴봄
-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4가지 기본방향 중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이 포함된 ‘배려하는 디자인’ 기본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기본방향: 배려하는 디자인
 - 방향성: 인간중심의 모두를 위한 디자인(Supportive, Accessible)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을 제공하고, 관리자를 위한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지향함
 - 중점사업: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다국어 표기 가이드라인 개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공공디자인 환경 구축, 정보 전달 관련 공공시설물 디자인 통합화, 관광안내사인디자인 국제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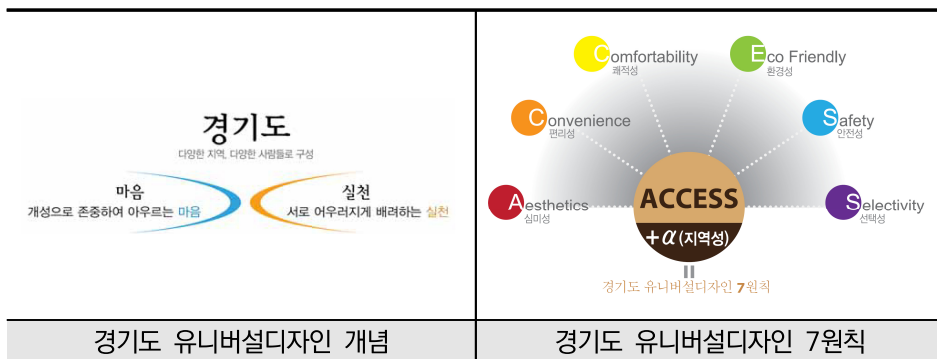


[그림 4-10]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중 ‘배려하는 디자인’

자료: 경기도청(2010),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3) 가이드라인

- 배경: 보다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미래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경기도 지역의 경우, 31개 시군 각각의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지역 특성 및 주민을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가 더욱 중요함
 - 즉, 경기도 공공디자인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현황 진단, 방향설정 등 관련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임
- 목적: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개념 및 방향 정립, 경기도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향 마련 등
 - 기본개념: 모두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경기도
 - 철학: 다양한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로 실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 7원칙: 차별없는 접근, ACCESS(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정성, 선택성, + α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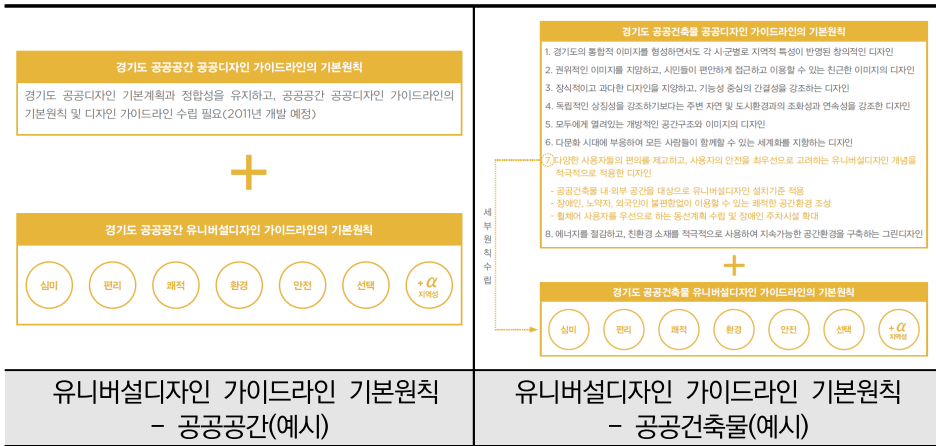


[그림 4-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자료: 경기도청(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체제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상호연계됨

- 범위: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공공디자인 영역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따름
- 유니버설디자인 영역 분류: 공공디자인과 동일(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 5가지)
- 그러나, 지역성 원칙에 기반하여 세부대상은 각각의 영역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 범위를 차별화시켜 구성해야 함



[그림 4-1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예시)

자료: 경기도청(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4)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아직 센터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디자인경기'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등 경기도디자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건축디자인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음(2023년 3월 기준, 홈페이지 운영업무 포함)

8) 디자인경기 홈페이지(<http://design.gg.go.kr>)

4. 검토 종합

1) 기본계획 구성

- [표 4-4]는 앞서 살펴본 서울과 제주에서 수립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계획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사안임
- 지자체별 계획 구성에 차이는 있으나, 향후 세종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가능할 것임

[표 4-4]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종합 비교

항목 구성		서울	제주	주요 내용
연구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의 범위	●	●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현황 진단	일반 현황	●	●	고령인구,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 증가 보행 친화적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 중요성
	관련 법·제도 현황	●	●	국내 법규 현황, 관련 정책 추진현황
	체계 및 방침	●		
	사업추진 현황	●	●	사업·교육·홍보 분야
	도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인식조사, 이동약자 설문조사, 현장조사
	특징 및 계획과제	●	●	시대적 여건 변화와 과제 도시문제 해법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본 방향	비전 및 목표	●	●	비전, 목표
	추진전략	●	●	
	전략별 실행방안	●	●	
	선도과제	●	●	
	시범대상지 계획	●	●	시범대상지 세부실행방안 도출 프로세스 제시
	보행법	●		보행성 평가, 결과 분석 및 제안
	결론	●	●	결론, 정책점 시사점

2) 가이드라인 구성

- [표 4-5]는 사례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 구성을 정리한 내용으로, 사례 이외에 경남과 천안도 함께 표기함
- 세부 가이드라인 구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향후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조하되, 세종시 특성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종합 비교

부문	영역	세부 항목	서울	제주	경기	경남	천안
가로	보도	보행안전구역	●	●	●		●
		차량진입구역	●	●	●	●	●
		대지 안의 공지	●			●	
		자전거도로	●	●	●	●	●
		시설물 구역	●	●		●	
		보차도 분리			●	●	●
	차도	국지도로	●	●		●	
		횡단보도	●	●	●	●	●
		속도저감 시설	●	●	●	●	●
공원·광장		사전정보제공		●			
		진입공간	●	●	●	●	●
		이동공간	●	●	●	●	●
		위생공간	●	●	●	●	●
		편의공간	●	●	●	●	●
		휴게공간	●	●	●	●	●
		안전시설		●	●		●
공공 건축물	접근 공간	대지출입구	●			●	●
		보행접근로	●	●	●	●	●
		주차장	●	●	●	●	●
	진입 공간	주출입구	●	●	●	●	●
		로비	●		●	●	
	이동 공간	복도	●	●	●	●	●
		실내출입문	●	●	●	●	
		경사로	●	●	●	●	●
		계단	●	●	●	●	●
		엘리베이터	●	●	●	●	●
		에스컬레이터	●	●	●	●	
		방재 및 피난시설	●	●		●	
	유도 및 안내		●				
	위생 공간	화장실	●	●	●	●	●
		다목적 화장실	●	●		●	●
		수유실	●	●	●	●	●
욕실, 샤워실, 탈의실		●	●	●	●	●	
	공공 시설물				●		
	공공 서비스				●		
	공공 정보매체				●	●	

제2절 국외 사례의 정책과 계획

1. 미국⁹⁾

1) 역사 및 배경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재활 훈련과 사회생활 지원 정책을 펼쳤음
- 기존 건축물을 비롯, 이미 존재하는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하기 위한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기 시작함

2) 정책 현황

-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1960년대 이후 장애인 인권회복을 위한 법규 제정, 주택·공공시설 장애물 제거, 재활의학·기술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됨
- 장애인에게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의 고용, 공공서비스, 대중 이용시설 및 장소, 대중교통 등 평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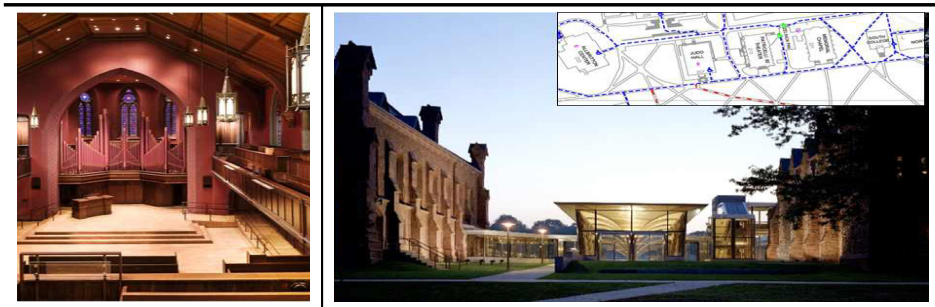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 인간중심디자인연구소(The Institute for Human Centered Design: IHCD): 1978년에 미국 보스턴에 설립된 국제 비정부 교육기관임
- 인간 중심의 디자인, 혹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든 연령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기회와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
- 포용 디자인 및 환경접근센터(IDeA): 장애인, 노인 세대 등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지식과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니버설디자인센터(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 CUD):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 있는 센터로, 주거·외부환경, 공공시설, 제품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을 평가·개발·보급역할을 담당함

9) 문화체육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를 토대로 정리함

4) 디자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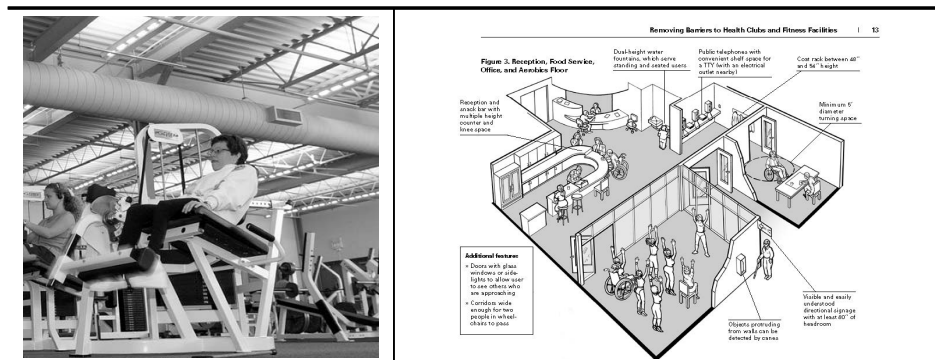
- Wesleyan University Performing Arts Center: 1831년 설립된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면서 공연장 내·외부에 휠체어 접근로를 설치함
 - 대학캠퍼스 지도에 이동 약자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기 전에 알 수 있도록(know-before-you-go)’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4-13] Wesleyan University Performing Arts Center

자료: 문화체육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노스캐롤라이나 장애·보건사무소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협력·제작한 지침임
 - 1990년 ADA에 의거 장애인, 노인 등 모든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그림 4-14] Removing Barriers to Health Clubs and Fitness Facilities

자료: North Carolina Office on Disability and Health

2. 일본¹⁰⁾

1) 역사 및 배경

-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특히 일본의 초고령 현상은 적극적·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회자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함

2) 정책 현황

□ 법률

- 기존의 관련법률을 통합, 2006년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촉진에 관한 법률인 「배리어프리 신법」을 제정함

□ 조직·활동

- 시즈오카 유니버설디자인 간담회 출범(1999년) 이후 다양한 정부·조직 활동이 있었으며, 최근 정책으로는 2017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한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수립이 있음



2020 도쿄올림픽 가이드라인

2020 도쿄올림픽 유니버설디자인 포스터

[그림 4-15] 2020 도쿄올림픽 가이드라인

자료: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https://www.paralympic.org>)

10)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김민주(2019)의 연구, 문화체육부(2012)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 교토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있음
 - 2005년부터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장애보 건복지 추진실'에서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시행함
 -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4월 '교토시 미야코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조례'를 제정하였음
 - 교토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관련 주요 추진사항은 [표 4-6]과 같음

[표 4-6] 교토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추진

시행연도	추진정책
2004. 04.	교토시 보건복지국 보건복지총무과에 UD 담당 신설
05.	교토시 사회복지 심의회 'UD추진조례 검토 전문 분과회'설치
2005. 04.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례' 시행
06.	'교토시 미야코 UD 심의회' 설치
2005. 12.	'교토시 미야코 UD 추진지침' 책정
2006. 05.	심의회내 '이용하기 쉬운 시설 만들기 부회', 'UD상 심사부회' 설치
08.	'미야코 UD 어드바이저 파견 제도' 창설
10.	'미야코 UD 심볼마크' 결정
2006. 12.	제1회 '미야코 UD상' 표창
2007. 03.	'찾았어! 교토의 유니버설디자인' 발행
2008. 04.	'유니버설 상영 보조제도' 창설
04.	'알기쉬운 인쇄물 작성법' 발행
07.	'미야코 유니버설디자인 포럼'개설
2009. 03.	'실천 유니버설디자인' 책자 작성
04.	'유니버설상영을 만들자' 발행
06.	'알기쉬운 정보발신 안내서' 발행
2010. 02.	'중학교 미술 유니버설디자인 수업 가이드북' 발행
03.	제1회 'UD소비자계발' 강좌개설
11.	'사람친화적인 가게를 만들자' 발행
2011. 03.	'보지 않고 즐기는 교토 여행' 발행
10.	교토시미야코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주임회의 설치
2012. 03.	'좀더, 모두와, 커뮤니케이션' 발행
03.	'소비자가 보고 들은 유니버설디자인' 발행
2013. 03.	'미야코 UD 사람 친화적인 시설 조성 사례집' 작성
2014. 06.	'교토시 미야코 UD 카루타' 작성
2015. 06.	교토시 공공시설 다기능화장실 이용에 관한 표지 통일
2016. 03.	'조례제정 10년 기념지' 작성

자료: 김민주(2019), '일본 교토시 유니버설디자인정책에 대한 고찰'.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관

- 국제유니버설디자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Universal Design: IAUD): 2002년 일본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총회의 정신과 결과를 계승한 조직임
 - 주거환경과 제품,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정보를 전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공용품추진기구(The Accessible Design Foundation of Japan): 공용품 공용서비스 개발·보급을 도모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4) 디자인 사례

□ 하네다공항 여객터미널

- 「배리어프리 신법」을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여행객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계획함
 - 고령자, 신체기능 제한자, 도움이 필요한 여행객 등 누구나 가까운 안내소를 이용하거나 공항서비스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터미널 내에는 시각적으로 시설 위치와 유도를 나타내는 안내 사인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배리어프리 신법」에 따라 색각을 배려한 배색, 멀리서도 인식하기 쉬운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음



[그림 4-16] 하네다공항 여객터미널 유니버설디자인

자료: 문화체육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후쿠오카시 나나쿠마선(福岡市七隈線)

- 일본 후쿠오카시 서남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후쿠오카시의 3호선 지하철 노선으로, 본 노선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임
 - 나나쿠마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장애인 대상 인터뷰 조사 등 1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과 ‘정보’로 구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콘셉트를 도출함
 - 유니버설디자인 콘셉트: 공간(이동 동선의 유니버설화, 영업설비류의 유니버설화, 통로공간의 유니버설화), 정보(공간의 기호화에 의한 정보표시, 역의 구별화를 위한 정보표시, 사인의 유니버설화)



[그림 4-17] 후쿠오카시 나나쿠마선 유니버설디자인

자료: 문화체육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3. 유럽

□ 유럽 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06-2015

-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활동,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커뮤니티 라이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에 의해 수립된 계획임
 -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완전한 참여의 실현 (Achieving full participation through Universal Design)’이라는 보고서로 출간되었음

□ 북유럽 디자인 포 올 행동계획 2005-2007

- 북유럽장애인정책의회(the Nordic Council on Disability Policy) 사무국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기초로 한 행동계획으로,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2005년에 채택함
- 인접지역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북유럽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디자인 포 올의 관점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역사적이며 접근성이 좋은 도시 연맹(LHAC)

- LHAC(League of Historical and Accessible Cities)는 유럽 전역의 지자체, 장애인 단체, 건축가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 간 협력 관계로, 역사적 도시의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
- 참여 도시: 이탈리아 토리노(Torino), 루카(Lucca), 프랑스 멀하우스(Mulhouse), 덴마크 비보르그(Viborg), 스페인의 아빌라(Avila) 등

□ 유럽 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17-2023

- 유럽 평의회는 2016년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시민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한 초안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전략 2017-2023을 채택함

<p>유럽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06-2015</p>	<p>LHAC 아이콘</p>	<p>유럽의회 장애인 행동계획 2017-20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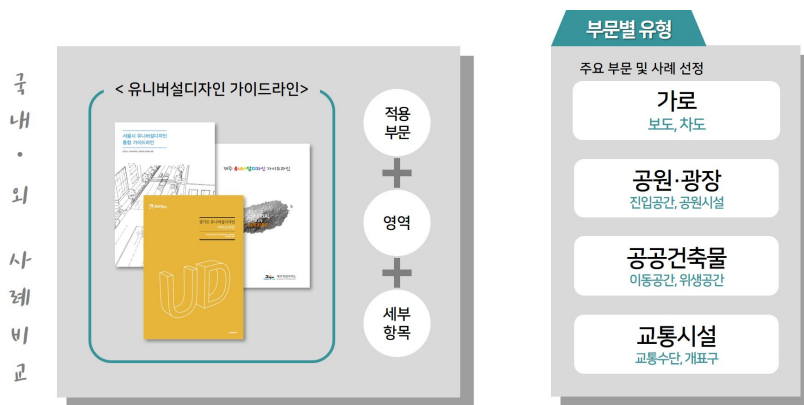
[그림 4-18] 유럽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자료: Council of Europe(<https://book.coe.int/en>), LHAC(<http://www.lhac.eu>)

제3절 부문별 유형

1. 부문 설정 방향

- 여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부문별로 유형화하여 사례를 정리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세종시가 범용디자인 관련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서울, 제주, 경기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자인 적용 부문, 영역,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함
-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공통된 적용 범위 중에서 대표적이라 판단되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 교통시설 등의 4가지 부문으로 설정함



[그림 4-19] 세부 부문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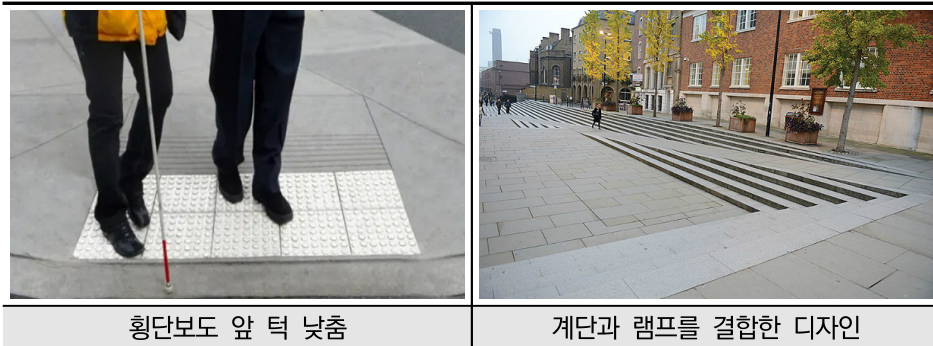
2. 부문별 검토

1) 가로

(1) 보도

-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앞의 보도-차도 간 단차를 낮춤

-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높낮이의 장애 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과 램프를 결합한 디자인을 적용함



[그림 4-20] 보도의 적용 사례(한국, 영국)

자료: Smart Cities Library(<https://www.smartcitieslibrary.com>), teletype(<https://varlamov.ru>)

(2) 차도

- 차도에서 보행자의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국지도로, 횡단보도, 기타 보행자 이동구간 등에 디자인을 적용함
 - 격자무늬 등 보도블록의 표시 강화, 도로포장재의 다양화 등
 - 차량속도 저감방안 중 하나인 과속방지턱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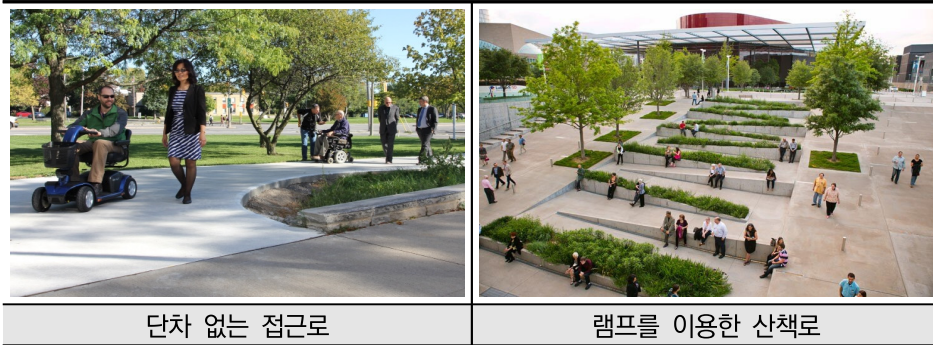
[그림 4-21] 차도의 적용 사례(한국, 뉴질랜드)

자료: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news>), 충청미디어(<https://www.thecm.net/news>)

2) 공원·광장

(1) 진입공간

- 단차 없는 접근로, 램프를 이용한 산책로 등 진입공간, 이동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그림 4-22] 진입공간의 적용 사례(영국, 미국)

자료: Queen's university(<https://www.queensu.ca>), LANDSCAPE PERFORMANCE SERIES(<https://www.landscapeperformance.org>)

(2) 공원시설

- 공원 내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공원시설을 제공함



[그림 4-23] 공원시설의 적용 사례(미국)

자료: Together We Play (<https://togetherweplay.playlsi.com/category>)

3) 공공건축물

(1) 이동공간

- 손잡이와 계단코에 눈에 띄는 색상과 안전한 소재를 적용하고, 손잡이의 높낮이 역시 키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동시에 디자인하여 설치함



키 차이를 고려한 손잡이

[그림 4-24] 이동공간의 적용 사례(한국, 호주)

자료: Archdaily(<https://www.archdaily.com>), CHC(<https://www.chc.com.au>)

(2) 위생공간

- 화장실 출입구에 그림문자를 붙여 직관적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함
- 이동이 불편하거나 아이를 동반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문과 풋스위치를 설치함



자동문 시공사례

자동문 풋스위치 설치

[그림 4-25] 위생공간의 적용 사례(한국)

자료: 서울교통공사(<http://www.seoulmetro.co.kr>)

4) 교통시설

(1) 교통수단

- 트램, 버스 등 승하차 시 단차를 줄여 누구나 무리없이 이동이 가능함
- 트램,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 좌석을 접이식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좌석으로 디자인을 변경함



[그림 4-26] 교통수단의 적용 사례(독일, 영국)

자료: 에이블뉴스(<http://www.ablenews.co.kr/news>)

(2) 개표구

- 휠체어 이용자, 짐이 많은 사람 등 모두가 빠르고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개표구(Ticket Gate) 간격을 넓게 설치함
- 휠체어뿐만 아니라 모든 바퀴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폭을 최소화함



[그림 4-27] 개표구의 적용 사례(일본)

자료: NDA(<https://universaldesign.ie>)

3. 부문별 전후 비교 종합

1) 가로 부문_ 보도·차로

- (적용 전) 횡단보도 구간이 명확하지 않고, 보도와 차도 간 단차가 있어 이동 시 불편함이 있음
- (적용 후) 횡단보도 구간에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색채와 블록으로 구분하고, 보도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 시 이동을 편리하게 함

2) 공원·광장 부문_ 주차장

- (적용 전) 주차구역과 보행공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차량과 사람이 혼재될 경우 접촉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적용 후) 차량과 보행동선에 혼선이 없도록 보행동선 표기에 인지하기 쉬운 색채를 적용함

3) 공공건축물 부문_ 다목적 화장실

- (적용 전) 장애인, 영유아 동반 이용자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설을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적용 후) 눈에 잘 띄도록 명도 대비가 높은 마감재 사용, 안전을 위해 손잡이의 길이·소재 변경,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위해 유아용 의자뿐만 아니라 기저귀 교환대도 추가로 설치함

4) 교통시설 부문_ 승강장

- (적용 전) 열차와 승강장 간의 단차가 있는 구조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램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탑승이 불편함
- (적용 후) 열차와 승강장 간 단차를 없앤 구조로 변경하여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도 쉽게 탑승이 가능함

부문(항목)	디자인 적용 전	⇒	적용 후
가로 (보도·차로)		⇒	
공원 · 광장 (주차장)		⇒	
공공 건축물 (다목적 화장실)		⇒	
교통 시설 (승강장)		⇒	

[그림 4-28] 부문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후 비교

자료: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Planning (<https://www.chescoplanning.org>), URBAN IDEAS (<https://www.urb-i.com>),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전략

제1절 전략방향 설정

제2절 범용디자인 제도적 전략

제3절 세종시 차별화 전략

제4절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5장

제5장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전략

제1절 전략방향 설정

1. 비전과 가치

□ 비전

- 모두에게 열린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관점에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는 i)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21세기적 시민의 니즈가 반영하며, ii)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미래기술과 상호작용하고 지속가능하며, iii) 환경적 관점에서 그린시티의 가치를 창출토록 함

⇒ 비전을 “**시민이 즐겁게 살기 좋은 범용적이고 포용적 도시**”로 설정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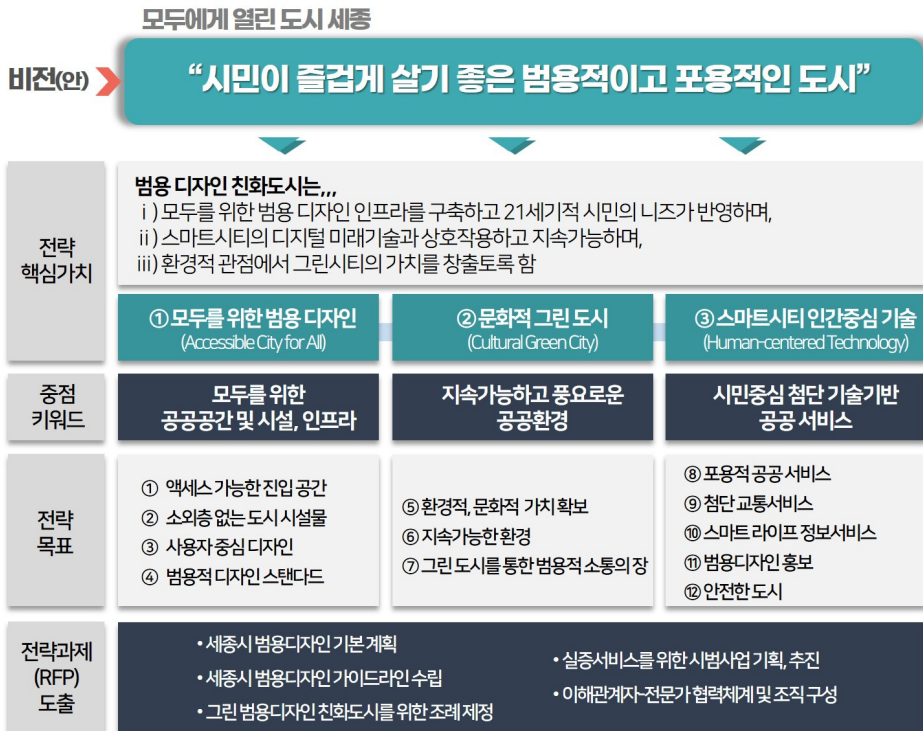
□ 전략적 핵심가치

- (모두에게 열린 도시 세종)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는 시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 ①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21세기적 시민의 니즈가 반영하고,
 - ②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미래기술과 상호작용하여 지속가능하며
 - ③ 환경적 관점의 그린시티의 가치를 창출하는 범용의 개념을 세우고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음

2. 추진 목표

- 범용적 디자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소외없는 포용적 도시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함

-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범용디자인 도시환경 조성 기반을 다지고, 조례에 기반한 활성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함
-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가 추진해 온 도시 및 공간 조성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함
- 범용디자인이 도시 생활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발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목표 수립과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세종시의 특화포인트를 초기에 개발하는 것을 ‘단기목표’로 설정함
-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략적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사전 검증하고 방향성의 실증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시민·사용자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냄



[그림 5-1]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전략방향

제2절 범용디자인 제도적 전략

1.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

1) 전담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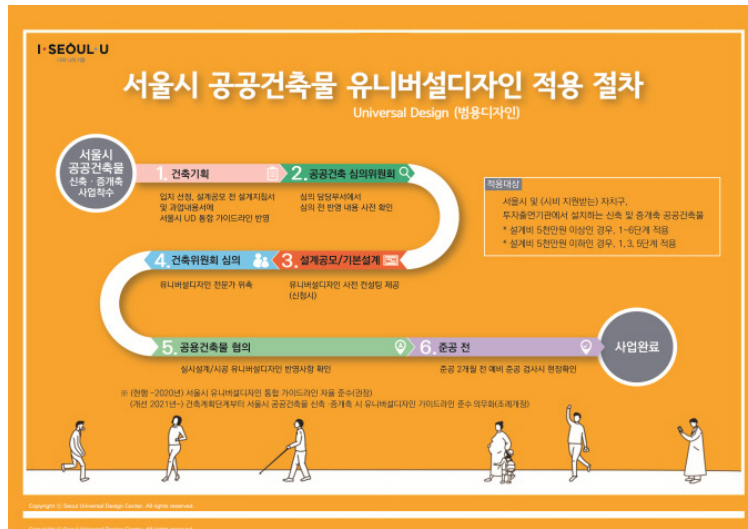
- 세종시는 2022년 말 제정된 조례의 체계적인 시행과 정책개발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는 서울시디자인재단과는 별개로 별도의 전담조직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센터 운영방식에 있어 최근 변화를 겪고 있으나, 아직 세종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 구성을 적극 고려해야 함

2) 제도의 보완

- 서울시의 경우 2021년부터 공공건물(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대상)의 신축·개보수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제도화한 상태임
- 세종시의 경우, 도시특성상 행복도시를 포함하여 관내에 다수의 공공청사가 입지하고 있으며, 향후 세종국회의사당, 국립박물관단지, 종합운동장, 세종시청 증축 등이 예정되어 있음
 - 향후의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범용디자인 개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3) 관련교육 대상 확대

-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도 범용디자인 요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 담당자 이외에도 마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범용디자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범용디자인 적용·기획사례(서울시, 공공건축물)



2.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현재 서울시, 제주 등 광역 단위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송파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도 적극 수립하는 추세임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는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음

2) 세종시의 특수성 고려·반영

- 제주도의 기본계획에서는 제주도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수립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도민의 인식 개선(시민아카데미 운영, 홍보매체 개발·운영 등)’, ‘전문가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참여 독려 등이 적극 반영되어 있음
 - 주요 효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인증 건축물 확산) + 인식·홍보 강화 + 산업화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사업명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사업명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희지 목적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일반 도민과 인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내용과 방법들 기획 개발 ·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위한 채널 개발 수립	희지 목적	제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획득의 시간적, 경제적, 내용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적 요구 충족 · 제주의 현실과 여건에 적합한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마련 필요
사업 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홍보물 제작 - 일반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양 길라잡이 안내서 유니버설디자인 직포그램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실무 매뉴얼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이너, 공무원, 시공 관계자 등을 위한 실무 지침서 제작 · 신축 및 증개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역할 · 유니버설디자인 자발 및 인센티브 신청 방법 · 국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홍보정보지 성격 · 도내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 주요 사례 소개 등 ·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상 제작 및 배포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 운영상	사업 내용	· 제주도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건축을 용도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추진 방안	· 도내 관련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가능 · 기획, 취재, 편집, 인쇄 등을 담당할 디자인 출판전문인력에 위탁 운영 가능 · 도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기)교류의 용역을 통한 매뉴얼·책 제작 · 유니버설디자인추진위원회, 실무진의 검토를 통한 과업일주 계획 수립	추진 방안	· 유니버설디자인인증센터에 내해 인증분부 설치 운영 · 도내의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건설당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평가 환류체계 수립 병행
추진 체계	· 기획 : 기획 실무추진팀의 구성 · 주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추진 체계	· 기획 : 인증제도 추진위원회 구성 · 주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기간 예산	· 시행시기 : 2021-25년 · 소요예산 : 60백만 원 (연간 사업비) / 각 아이템별 별도 예산 필요	기간 예산	· 시행시기 : 2024-25년 · 소요예산 : 200백만 원 (연간 사업비)
관련 사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홍보매체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	관련 사례	 서울특별시, 진주시 등에서 자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증 시행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인증제도 운영

[그림 5-3] 제주도 기본계획의 여건 반영전략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 향후 세종시가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도시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나,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세종시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 ▶ **별도의 정책개발 전담부서 필요**
예) 서울시디자인재단 외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별도 설치
- ▶ **세종시내 건설 예정 공공건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보완 필요**
*국회의사당, 박물관, 종합운동장, 세종시청 증축 등
예) 서울시: 2021년부터 모든 신축·개보수 공공건물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
- ▶ **범용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 담당자 이의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대상 교육 확대

+ “범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 필수 수립 필요**
예) 다양한 지자체 단위로 이미 계획수립 완료
- 광역: 경기도, 충남, 서울, 제주 등
- 기초: 대전(동구청), 대구(달서구), 광주(동구), 서울(송파구) 등
- ▶ **일자리 창출, 참여 독려 등 전략적 부분 반영 필요**
예) 제주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21)
- 일자리 창출: '도민의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 참여 독려: '인센티브제도' 등

[그림 5-4] 범용디자인 친화도시의 제도적 전략

제3절 세종시 차별화 전략

- 2008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발의된 이후,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세종시는 10여 년 이상 늦게 제도화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1. 차별화 전략의 방향

1) 방향성_ 단순 인프라사업이 아닌 문화로 접근

-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추진의 전략적 특징은 21세기적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세종시 비전과 함께 시민 모두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문화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임
- 단순 도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시민의 삶 전체를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을 적용해야 삶의 질 제고와 함께 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음

2) 내부적_ 시너지 전략 필요

- 세종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타 분야의 추진전략 목표들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세종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예: 미래전략수도 + 행정수도 + 정원도시 + 첨단스마트도시)과의 연계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함

3) 외부적_ 세종시만의 특화전략 필요

-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타 시도가 추진한 관련계획과 전략 등을 참조하되, 단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세종시만의 전략을 구상해야 함
- 환경적 요소인 ‘그린(Green)’ 전략과 ‘스마트 기술(Smart Tech.)’, 그

리고 '시민주도(Citizen-lead)'를 함께 전략요소로 가지고 가면서 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별화·특화전략을 수립해야 함

4) 과정적_ 시민 중심의 전략 필요

-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은 단순한 공공 주도의 배리어프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함
- 시민 간에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5) 내용적_ 범용디자인 인프라 확대에 주력

-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도시 전반의 인프라 (건축,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와 공공디자인 인프라 확대에 주력함
- 전체 도시민의 삶의 공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수준있는 포용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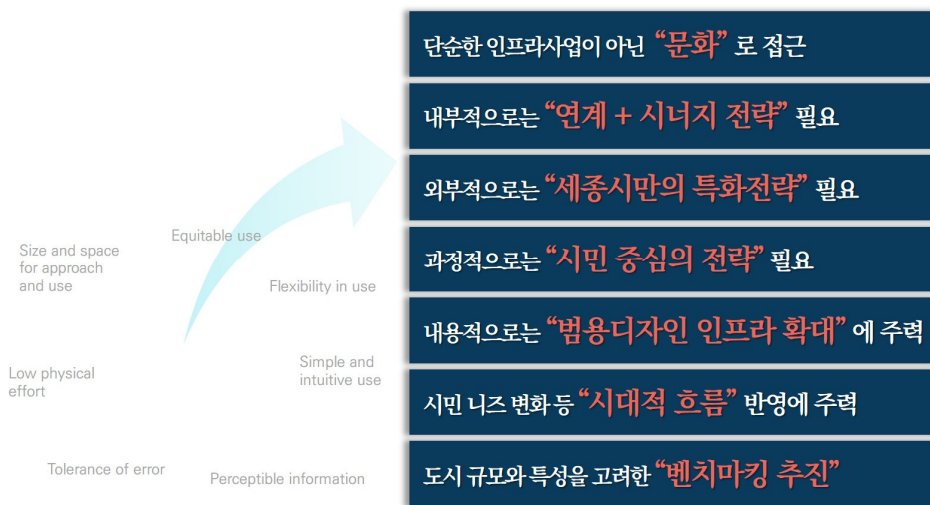
6) 시대성_ 시대적 흐름 반영에 주력

- 유니버설디자인이 처음 도입된 1980년대와 현재 시점은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러 시민의 생활 패턴이나 니즈가 변화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 모습과 생활방식이 많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의 니즈는 인터넷과 AI, 메타버스 등의 도래와 더불어 이전의 양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전략 마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 반영해야 함

7) 적정성_ 도시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벤치마킹 추진

- 세종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 그리고 서울 등 대도시와는 규모적으로 차이가 있음

- 또한,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유사사례의 도입은 자칫 특징없는 공간 조성과 한계·부작용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관련계획 수립과 전략 마련에 있어서는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과정이 필수적이나, 세종시의 도시적 특성과 지향점을 고려한 ‘필터링’ 작업이 필요함
- 유사사례의 검토과정에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신도시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적절한 방향·내용구성과 전략이 도출되도록 해야 함



[그림 5-5] 세종시만의 차별화 전략 방향

2. 차별화 전략 도출

1) 전략 1_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정수도 홍보 + 범용디자인 국제적 DB 구축 동시 모색

- 세계적 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카운슬이나 노르웨이의 텔 타센터 등 최근 유럽 국가의 도시나 담당 실무부서 간의 협약 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DB를 구축함

- 런던 건축페스티벌이나 밀라노 디자인페어 등 국제적 도시공간디자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종시의 좋은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임

전략 2_ 청년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

- 타 시도의 공모전이나 국제 세미나 등과 차별화되는 전략으로서 ‘UD 국제 청년 페스티벌’ 등의 상징적 행사 개최를 고려할 수 있음
 - 시기적으로는 2027년 유니버시아드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방향도 적절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건축, 디자인 워크샵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할 수 있음
- 범용디자인관련 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함께 제품 개발 등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확대함

전략 3_ 읍면-행복도시를 잇는 공통의 전략으로 추진

- 세종시 미래마을 프로젝트 등 읍면지역의 지역개발과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토록 함
 -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은 읍면 마을 단위의 개발에 범용디자인전략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함
 - 세대, 구역간 차이 없이 도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투자 및 지원전략을 마련함
- 고령화시대에 농어촌지역을 위한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진하여 현재 도시 중심에서 탈피하여 고령화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현상을 받아들이도록 함
 -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모두를 포함하는 디자인으로 확대하여 차별화함

전략 4_ 첨단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미래적 범용디자인 전략 추진

- Chat GPT 등 AI 기술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보급되어 사람들의 니즈나 눈높이가 이전보다 많이 스마트화되고, 첨단기술 기대감이 높은 시점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융합된 효과적인 구현방법을 모색해야 함
 - 디지털 접근성(Digitally accessible city): 세종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웹사이트, 모바일 앱, 온라인 양식 등)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령자·장애자들에게 고르게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인프라를 개선함에 목표를 둬
- 교통 부문에서는 스마트 교통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함
 - 차량 개선, 교통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촉각을 통한 안내, 음성 안내 등 기술결합형 도시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시설 디자인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차별화된 스마트도시 세종시 모델'을 제시함
-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인간 중심적인 도시로 누구나 편리하게 도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험 대응, 구조시스템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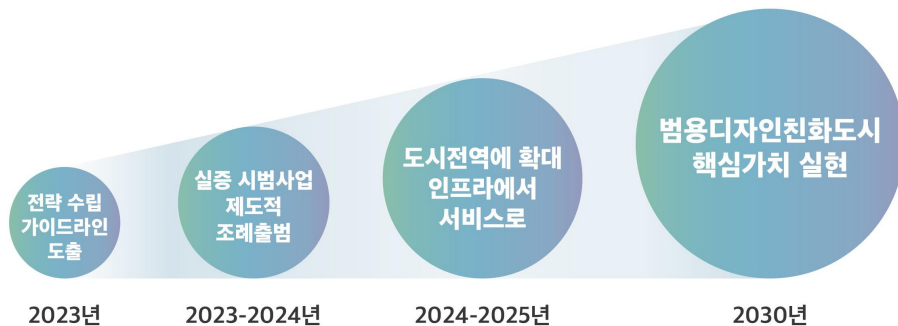
전략 5_ 세종시의 현안과제와 연계된 전략 수립

- 세종시의 현안 또는 추진과제들과 방향성을 연계·추진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범용디자인은 사업 특성상 대부분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융합적 전략임
 - 향후 사업 추진시 행정력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는 협력 시스템, 예산 공유 등이 필요할 것임

제4절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로드맵

1. 친화도시 발전방향

- 세종시의 범용디자인 친화도시의 발전방향을 표현하면 [그림 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단계(~2023년): 전략 수립 및 가이드라인 도출
 - 2단계(~2024년): 실증 시범사업, 제도적 틀 마련(조례 제정 등)
 - 3단계(~2025년): 도시전역에 확대(인프라 중심 → 서비스 영역)
 - 4단계(~2030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핵심가치 실현
- 3단계(~2025년)까지가 단기적 방향이라면, 장기적으로는 2030년(4단계)까지 범용디자인 친화도시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형태가 적절한 방향이라 판단됨



[그림 5-6]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발전방향

2. 로드맵의 핵심 이슈

□ 비전 개발

- 접근성(accessibility)와 포용성(inclusiveness)을 세종시 범용디자인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포괄 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개발함
 - 비전 개발은 도시가 각각의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목표 설정

- 명확하게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 나갈 구체화된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이 때 목표는 특정 그룹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하며, 공감을 바탕으로 실천성이 강조된 목표이어야 함
 - 가이드라인 개발,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실행을 위한 측정 가능하고 계획된 시간 내 성취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관련 기초 데이터 수집

- 범용디자인의 주요 사용자와 수혜자(특히, 노인, 장애인 등) 계층의 니즈를 발굴하고 데이터를 수집함
 - 정량데이터의 경우 도시 인구통계, 교통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성 등에 대한 수집과 분석 등을 포함함

□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시스템 마련

- 지역의 관련단체와 세종시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추진과정에서 공정하면서도 시민들의 다양함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니즈를 발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가능한 폭 넓은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전문가 파트너십 구축

- 장애인 권리에 대한 문제, 배리어프리 디자인 및 범용디자인 설계에 특화된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함
-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협의체들을 설득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무진의 역할을 지원·보조하는 역할을 강화함

□ 범용디자인 평가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시행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차원에서 범용디자인의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함

□ 홍보 강화

- 범용디자인은 자칫 특정계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견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도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념을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야 함
- 전략 추진을 위한 행정팀의 교육,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교육 그리고 청년을 비롯하여 평소 이해도가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사전홍보를 병행 실시함

□ 교육·검증·평가체계 구축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실행안 수립하여 평가시스템과 연결되도록 함
- 이해관계자의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소통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이 전략에 반영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함
 - 추진체는 지원조직이자 동시에 감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전략의 검증: 전략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검증된 전략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외 파트너십 등을 구축하여 시행함
 - 예: 핀란드의 범용디자인 픽토그램 개발시에는 디자인을 개발한 후 사용자 테스트를 반복 시행하여 최종 결정함
- 실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실증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도 측정 척도 및 핵심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피드백과 시스템화 작업이 필수적임

3. 단계별 전략과제

1) 단기 과제

□ 제도·조직적 기반 조성 (~2024년)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과 시설 인프라의 접근성 및 포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야 함
 - 2022년 말 시행된 조례를 뒷받침하고, 세부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공고히 수립함
- 추진조직 구성(전담팀 구성): 범용디자인 관련 조례에 기반하여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함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전담부서 혹은 전담팀이 필요함
 - 현재 세종시에는 공공디자인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직 보완(확충)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개발 (~2024년)

- 기본계획 수립: 범용디자인 관련 세종시 정책방향성과 전략내용 등을 제시하는 ‘(가칭)세종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범용디자인 정책은 현재 서울, 제주 등 타 지자체의 계획과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¹¹⁾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추진사업, 특화구역 조성 등을 통해 세종시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도록 유념하며,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통합적으로 수립함
- 가이드라인 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설계시 및 시설물 인프라 설치시 준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1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 미래비전>,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2차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등 종합계획을 여러 차례 수립한 바 있음

- 공공사이니지 가이드라인: 스마트시티로서, 공공정보 매체 위주의 디지털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함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선포식 개최

-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함
 - 조례 제정, 기본계획·가이드라인 등 그 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정책방향을 홍보하는 시작점으로 활용함

□ 시범사업 실행 (~2024년)

- 시범(실증)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추출된 니즈를 기반으로 실제 도시공간에 실증적 인프라를 사업화하여 기획하고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전략 수정·보완에 반영함
- 시범사업을 통한 홍보 효과 도모: 시범사업은 도시인프라 구축이나 공공디자인 사업 이외에도 교육사업, 문화 이벤트 등과 연계가능함
 - 시민의 범용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확산시키는 등 시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한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작은 공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디자인 원칙과 새로운 기술을 실험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 및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농촌을 위한 범용디자인 시범사례 개발 (~2024년)

- 농어촌지역 시범사례 개발: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는 미래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 등 고령자 집중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별화된 ‘(가칭)특별 범용디자인 시범사례’와 관련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함
-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과의 연계: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례를 개발·지원함

2) 장기 전략과제

□ 전문센터(세종시 범용디자인센터) 설립 및 연대 강화

- 세종시 범용디자인센터 설립: 향후 수립될 '(가칭)세종시 범용디자인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범용디자인센터 혹은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디자인적 니즈들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 협력 및 연대 강화: 범용디자인센터 설립은 세종시의 지역 대학과 연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세종시 공공건축가를 포함하는 관련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함

□ '범용디자인 시민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 지속가능한 범용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가칭)범시민적 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일상 속에서 소외된 사람없이 모두가 참여·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성인, 시니어 층을 위한 각 연령별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범용디자인 청년 레지던시' 조성

-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디자이너·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를 조성함
 - 새로운 범용디자인사업을 기획하고 디자인상품 등 창업 콘텐츠 개발 공간으로 활용
 - 새로운 범용디자인의 지역 청년 양성과 창업 지원 시범사례를 구축함 (입주자 선정방식(예): 공모방식)

□ 범용디자인 커머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범용디자인을 사업화하여 창업라인과 연결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홍보와 판매 등을 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
- 오프라인 플랫폼은 세종시 범용디자인센터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성과를 고려하여 상업적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범용디자인 도시내 시범사업 확산

- 시범사업 발굴: 단기적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을 확대, 소단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확대·추진함(공모·발굴, 예산 확보)
- 새로 발굴·선정된 범용디자인 사업과 더불어 전문가 기획단 추천사업 등을 선정하여 함께 추진함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관련인프라를 세종시 전역에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함

□ 다양한 관련 이벤트 기획 추진

- 범용디자인 국제 청년 페스티벌: 2027년 국제유니버시아드와 연계하여 범용디자인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홍보와 함께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함
- 국제 청년 페스티벌: 국제 청년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국제 공모전·워크숍 등을 추진함
- 국제 범용디자인 전시: 세종시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4차 산업시대에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활용함
- 범용디자인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 전문가회의: 범용디자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세종시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다짐
- ‘범용디자인 트리엔날레’: 단순 전시에 그치는 비엔날레와 달리 해외에서 열리는 트리엔날레 행사를 지역과 연계하는 공공디자인 기획에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국제행사 추진으로, 지역의 방문객 유입과 상권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며, 장래 문화·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결론

제1절 연구내용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내용 종합

- 본 연구는 세종시를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기초연구임
 - 세종시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범용디자인 제도 도입과 운영방안 마련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 범용디자인

-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을 비롯하여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의미함
 - 차별과 제약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뜻하며,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용함을 뜻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도입 초기에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념을 강조하였으나,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의미가 확장·발전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순화어(다듬은 말)로 범용디자인을 제시하고 있음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 성별, 연령,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과 환경 설계를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함



□ 세종시의 친화도시 조성전략

- 세종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화도시’ 조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 → 2021년 12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2단계 지정
 - 아동친화도시: 2021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2025.12.29.). 「세종 아동친화도시조례」 제정(2022.12.20. 시행)
 -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 「세종 고령친화도시조례」를 제정(시행 2017.12.11.)

[세종시의 친화도시 지정현황]

친화도시명	최초지정년도	내용
여성친화도시	2016.12.	○ 2021.12.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 
아동친화도시	2017.9.	○ 2022.12. ‘제12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고령친화도시	2020.3.	○ 3년간, 8대 영역 52개 실행과제 수행 

□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 세종시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은 크게 i) 제도적 정비, ii) 관련계획 수립, iii) 시행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세종시의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작업 》

1.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 조례 제정
2.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방안 제시 ☞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3.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제고 및 시민참여 유도 ☞ 시범사업 실시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전략

- 비전: “시민이 즐겁게 살기 좋은 범용적이고 포용적 도시”로 설정하고,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함
- 핵심가치: ① 모두를 위한 범용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21세기적 시민의 니즈가 반영하고, ②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미래기술과 상호작용하여 지속가능하며, ③ 환경적 관점의 그린시티의 가치를 창출하는 범용의 개념을 세우고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함

□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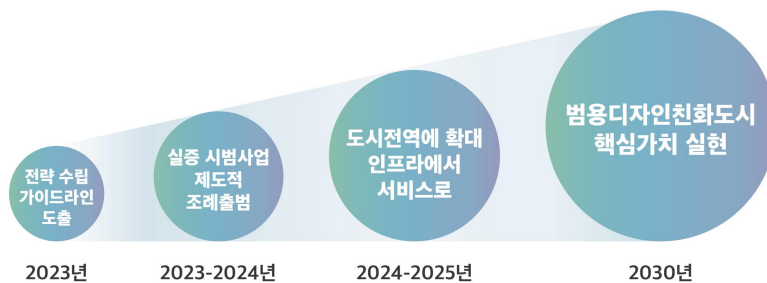
-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현재 서울시, 제주 등 광역 단위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송파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도 적극 수립하는 추세임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는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과제임
- 세종시 특수성 고려·반영: 제주도의 기본계획에서는 제주도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계획수립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효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인증 건축물 확산) + 인식·홍보 강화 + 산업화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등
 - 세종시가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도시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나,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세종시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 차별화 전략

- 전략 1: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정수도 홍보 + 범용디자인 국제적 DB 구축 동시 모색
- 전략 2: 청년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확대와 일자리 창출
- 전략 3: 읍면-행복도시를 잇는 공통의 전략으로 추진
- 전략 4: 첨단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미래적 디자인 전략 추진
- 전략 5: 세종시 현안과제와 연계된 전략 수립

□ 친화도시 발전방향(로드맵)

- 1단계(~2023년): 전략 수립 및 가이드라인 도출
- 2단계(~2024년): 실증 시범사업, 제도적 틀 마련(조례 제정 등)
- 3단계(~2025년): 도시전역에 확대(인프라 중심 → 서비스 영역)
- 4단계(~2030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로서의 핵심가치 실현
 - 3단계(~2025년)까지가 단기적 방향이라면, 4단계(~2030년)를 장기적 방향으로 하여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음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발전방향]

제2절 정책 제언

□ 조례에 근거한 정책 추진

-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함
 - 조례에서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범용디자인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사례와 타 지자체 동향을 토대로 관련사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 사업별 추진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조례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세종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세종시 정원도시 조성 노력과의 연계

-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제정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한편 세종시는 C.I.B(Communities in Bloom)¹²⁾의 국제정원도시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평가에 앞서 지난 2023년 4월 23일~25일 의장단이 세종시를 방문한 바 있음
 - C.I.B 방문목적: 협력관계 구축(MOU 체결), 현장 답사, C.I.B 평가 준비, 자문회의를 통한 발전방안 논의 등

12) 캐나다 소재 글로벌 비영리조직으로, 국제정원도시 평가를 진행함. 1995년부터 2022년까지 20개국 200여 개의 도시를 평가하였으며, 세종시는 2023년 하반기에 평가 실사단이 심사할 예정임

- C.I.B 평가항목은 6개 항목으로, ① 지역사회의 외관, ② 환경에 대한 조치, ③ 자연 유산 보존, ④ 수목관리, ⑤ 경관 관리, ⑥ 식물 및 화훼 배치 등으로, 이 중 경관의 평가요소 중 ‘지속가능설계(디자인)’ 등에 관련성이 있음
- 향후 범용디자인 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세종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정원도시 조성 전략과 적극 연계한다면, 세종시 위상과 이미 지 제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효과적인 전략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경기도청(2010),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경기도청(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2018), “제1차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20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익산시(2011),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길라잡이”.
- 제주특별자치도(2021), “제2기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2019),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논문자료

- 강병곤·윤동식(2021), 「공연장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1 No.1: 41-44.
- 김민주(2019), 「일본 교토시 유니버설디자인정책에 대한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58): 215-228.
- 김보애·이연숙(2014), 「통합교육학교 성공사례에 나타난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1 No.1: 37-46.
- 김효진·김주연·장영호(2022), 「원주시 근린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3: 339-350.
- 김규리·장영호·김주연(2021),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1: 349-357.
- 남지연·박상희(2022),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본 통학로 공공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Vol.27 No.2: 63-74.
- 박민지·박성준(2013), 「가로 휴게시설물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평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1: 176-179.
- 박선희·장영호·이재규(2020), 「복합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2: 121-134.

- 박은정·채철균(2020),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적정 주거공간 면적」,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1 No.1: 35-48.
- 박정아(2010),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본 미국노인들의 주거실태 및 요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9 No.6: 1127-1137.
- 백설·김성아·김홍순 (2022),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UD)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LHI Journal, Vol.13 No.1: 1-9.
- 성기창(2018), 「학교건축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ol.24 No.4: 59-67.
- 신규남·이용환(2019), 「유치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Vol.184 No.4: 7-20.
- 신은경·박수빈·김혜정(2015), 「아파트 단위세대 계획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6 No.4: 45-53.
- 신한나·한지은·황지연·황인성·김재용(2011), 「서울시 노인주거환경 니즈를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환경 사용성 평가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3 No.3: 38-42.
- 안상녕·남경숙(2019), 「도시주거단지에서 노인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1: 308-311.
- 유정·황연숙(2022), 「도시재생 문화예술공간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31 No.1: 88-96.
- 이선영·이민우(2016), 「초등학교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教育施設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ol.23 No.2: 19-29.
- 이승은(2014), 「신체장애인 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14 No.11: 29-34.
- 임채숙(2014), 「한국형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유니버설 공간·환경 디자인 지침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24 No.4: 67-77.
- 장하영·김나운·강현주(2018), 「유니버설 디자인 컨셉을 적용한 무장애통합놀이터 사례분석」,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6: 311.
- 정성윤·손동욱(2018), 「보행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38 No.1: 345.
- 진고은·남경숙(2019), 「노인 외출편의를 위한 유니버설관점의 지하철공공시설 디자인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1: 382-385.
- 최승철(2018),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횡단시설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9 No.3: 417-428.

하정민·장영호·김주연(2022), 「서울시 경로당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8: 193-204.

□ 사이트 자료

굿모닝충청 (<http://www.goodmorningcc.com>)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
디자인경기 (<http://design.gg.g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서울교통공사 (<http://www.seoulmetro.co.kr>)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www.sudc.or.kr/main.do>)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http://childfriendlycities.kr>)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jeu.go.kr/index.htm>)
지방자치24 (<http://localarea24.tistory.com>)
충청미디어 (<https://www.thecm.net/news>)
Archdaily (<https://www.archdaily.com>)
CHC (<https://www.chc.com.au>)
Council of Europe (<https://book.coe.int/en/>)
Landscape Performance Series (<https://www.landscapeperformance.org>)
LHAC (<http://www.lhac.eu/>)
NDA (<https://universaldesign.ie>)
Planning (<https://www.chescoplanning.org>)
Queen's University (<https://www.queensu.ca>)
Smart Cities Library (<https://www.smartcitieslibrary.com>)
Teletype (<https://varlamov.ru>)
Together We Play (<https://togetherweplay.playlsi.com/category>)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https://www.paralympic.org/news>)
URBAN IDEAS (<https://www.urb-i.com>),
Webzine 프리즘 (<http://report.ableforum.com/webzine-prism>)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366-0 93350